

최 배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시 중년기 주부 가정의  
추모의례에 대한 사례 연구

- 忌日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예절다도학 전공  
구 속 회

서울시 중년기 주부 가정의  
추모의례에 대한 사례 연구

- 忌日을 중심으로 -

최 배 영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예절다도학 전공  
구 속 회

# 인 준 서

구속회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의례의 실상을 그를 주관하는 중년기 가정의 주부를 통해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과 가정의 추모의례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모의례의 변화를 예견하기 위해 향후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시대변화에 따른 추모의례문화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재정립을 토대로 현 사회에 적합한 추모의례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40~50대 중년기 주부 40명을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의 각 종교별로 10명씩을 선정하여 2009년 8월 1일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기초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공식적인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 이상이었고, 한 사례 당 평균 2회 정도의 면담기회를 가졌다. 면담의 모든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고 중요한 상황은 따로 메모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후 면담 내용을 모두 타이핑하여 자료화하였으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전화 통화로 자료를 보완하였다. 2009년 10월 25일부터 2009년 11월 10일까지 자료화된 면담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추모의례에 대한 중년기 주부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많은 이들이 조상을 향한 정성의 표현으로, 조상을 기리는 정(情)의 문화로 추모의례의 본질적 의의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모의례는 가족들의 화목과

협동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끼게 하며, 조상의 교훈과 유지를 기억하고 열심히 생활하게 하는 기반으로, 그리고 효의 근본을 일깨우는 자녀교육의 계기가 되는 기능에 중요성이 있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의 추모의례문화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점차 형식이나 절차는 축소되면서 간소화된 모습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다수였다.

2. 중년기 가정의 추모의례 실태를 살펴본 결과 첫째, 추모의례의 형식은 유교식이 60.0%, 기독교식·천주교식·불교식 등 종교별 추모의례 절차에 의거하는 형식이 27.5%, 유교식+천주교식 혹은 유교식+불교식의 결합이 12.5%로 대체적으로 제례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추모의례의 주관은 장남이나 독자가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일부 사례를 보면 시댁형제들이 돌아가며 주관을 하기도 하고, 신앙적인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추모의례의 주관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추모의례의 대상 범위는 1대조까지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대조, 2대조, 4대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추모의례의 참석자로는 남편과 주부 외에 자녀 그리고 남편의 형제자매와 배우자가 대표적이었다. 넷째, 추모의례의 장소는 주관자 집의 거실이나 안방이 주가 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봉안당, 성당, 사찰 등이 언급되어 가정이 아닌 추모시설이나 종교기관에서의 이행 상황을 반영하였다. 추모의례를 행하는 일시는 돌아가신 전날 저녁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나 돌아가신 날 저녁, 돌아가신 날을 앞둔 공휴일에 추모의례를 행하는 가정도 있었다. 추모의례 참석 시 복장은 남성은 대체로 양복이나 정장을, 여성은 평상복이나 정장을 착용하고 있었다. 다섯째, 추모의례를 위한 준비용품으로 유교식 추모의례를 행하는 가정에

서는 병풍, 신주나 지방, 상, 촛대, 제기 등을 마련하고, 유교식+천주교식 혹은 유교식+불교식에서는 유교식과 같은 준비 외에 종교적 물품이 추가적으로 사용되었다. 성당이나 사찰 등의 추모의례와 가정에서의 기독교식 추모의례에서는 종교적 절차에 사용되는 용품을 중심으로 하였다. 음식준비에 있어 유교식, 유교식+천주교식, 유교식+불교식에서는 제사상음식과 가족들을 위한 음식이 모두 마련되는 반면 기독교식 추모의례를 행하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위한 음식만 마련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추모시설이나 종교기관에서 추모의례를 행하는 경우에는 내부에 마련된 식당을 이용하거나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모의례의 음식비용 부담은 시댁형제들이 현금이나 음식으로 상호 분담을 하는 경우와 전적으로 주관자의 가정에서 부담하는 경우로 대별되었다. 여섯째, 오늘날 추모의례의 형식으로 인한 갈등은 주관자의 종교와 참석자의 종교가 다른 점에서 기인을 하였다. 또한 주부들에게 있어 추모의례로 인한 부담감이 시간, 비용, 가사노동 등의 면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3. 중년기 주부들은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기 위해, 형제 간 우애를 위해, 가족의 공동체의식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을 전승하기 위해 향후 자녀세대의 추모의례 이행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중년기 주부들이 향후 지향하는 추모의례의 모습을 정리하면 첫째, 가정 내 지속되어온 추모의례의 형식이 그대로 고수되는 경우도 있으나 다음 세대에는 자녀의 의사에 따라 지금과는 다른 형식으로 변화되는 혹은 종교별 추모의례의 접목 형식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며, 주관자의 가정이 아닌 종교기관이나 추모시설에서 추모의례를 행하는 형식도 늘어

날 것으로 예견된다. 둘째, 추모의례의 날짜와 시간은 돌아가신 날 저녁 혹은 돌아가신 전날 저녁 외에도 돌아가신 날을 앞둔 주말저녁이나 공휴일 혹은 참석자들이 모이기 편리한 시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추모의례의 대상범위는 1대조 혹은 2대조까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참석자도 추모의례의 대상범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넷째, 추모의례를 위한 음식준비는 성의 있게 하되 참석자들 간의 분담이나 일부 구입으로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들이 요구될 것이며 음식준비 비용 역시 형제들 간 분담을 지향할 것이다. 다섯째, 여전히 추모의례의 주관자를 맏이(예:장남 혹은 장녀)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음을 볼 때 가정은 물론 대학과 종교기관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추모의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중년기 주부들의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가정의 추모의례 실태 그리고 향후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 등의 면접조사결과를 토대로 추모의례가 이행되는 장소에 따른 추모의례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가정에서의 추모모델은 형식별로 유교식의 기제, 기독교식의 추도예배, 유교식 기제와 천주교식 요소의 결합, 유교식 기제와 불교식 요소의 결합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가정의 종교가 천주교, 불교인 경우에는 종교기관인 성당에서의 연미사와 사찰에서의 천도재로 진행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오늘날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바뀌면서 추모시설이 실내 봉안당과 야외의 산소 혹은 수목공원 등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추모시설에서도 추모의례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안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II. 연구배경 및 관련연구 동향	3
1. 추모의례의 개념	3
2. 종교별 추모의례	5
3. 선행연구	18
III. 연구방법	30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30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31
IV. 연구결과 및 해석	34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4
2.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37

3. 추모의례의 실태 . . . . .	41
4. 향후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 . . . . .	63
5. 추모의례의 모델 . . . . .	76
V. 결론 및 제언 . . . . .	82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목차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 . . .	35
<표 IV-2>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 . . . .	38
<표 IV-3> 추모의례의 형식별 주관자, 대상범위 및 참석자 . . . . .	43
<표 IV-4> 추모의례의 형식별 장소와 일시 및 참석복장 . . . . .	48
<표 IV-5> 추모의례의 형식별 준비용품 . . . . .	51
<표 IV-6> 추모의례의 형식별 음식준비여부와 마련방법 . . . . .	54
<표 IV-7> 추모의례준비를 위한 가족의 자세 . . . . .	57
<표 IV-8> 자녀세대의 추모의례이행에 대한 기대 . . . . .	64
<표 IV-9> 자녀세대에게 희망하는 추모의례의 모습 . . . . .	69
<표 IV-10> 자녀세대를 위한 추모의례 교육의 주체 . . . . .	74
<표 IV-11> 자녀세대를 위한 추모의례 교육의 내용 . . . . .	74
<표 IV-12> 가정에서의 추모모델 . . . . .	78
<표 IV-13> 종교기관에서의 추모모델 . . . . .	79
<표 IV-14> 추모시설에서의 추모모델 . . . . .	81

## I. 서론

오늘날 도시적 생활양식의 보편화, 양성평등사상의 고조, 핵가족과 독신가족의 증가, 여성들의 고학력 추세 등 시대와 사회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가정 내 의례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례의 경우에는 과거의 유교적 의례 양식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각 가정의 종교에 따른 의식 하에 추모의례를 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 추모의례는 종교별로 의식절차 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조상의 기일에 그 분을 기리고 추모하는 의례를 통칭한다.

가족과 사회의 변모 과정 속에 추모의례는 과거와 현재의 시대적 차이 그리고 종교로 인한 가족 간 갈등 내지는 개인적 부담감의 문제 상황이 존재하고 있어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부합되는 추모의례에 대한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의 생활이나 정서에 부합하는 추모의례의 모델을 모색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문화인류학, 사회학, 신학, 종교학, 가정학과 같은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들은 대부분 유교적 제례 실태 파악에 국한되어 다양한 종교별 추모의례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이행되고 있는 종교별 추모의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로부터 추모의례의 제반 사항을 준비함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컸던 점을 감안하여 중년기 주부들을

대상으로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의례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과 가족 간 갈등의 요소나 부담감을 밝히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년기 주부들이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를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추모의례를 예견하고 이를 토대로 지향해나가야 할 추모의례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실천 가능한 추모의례의 대안제시와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추모의례 교육의 방향을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의례의 실상을 그를 주관하는 중년기 가정의 주부를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과 가정의 추모의례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대변화에 따른 추모의례문화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재정립을 토대로 현 사회에 적합한 추모의례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Ⅱ. 연구배경 및 관련연구 동향

### 1. 추모의례의 개념

추모(追慕)는 돌아가신 이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다. 최우영(2003)은 추모를 돌아가신 분을 애뜻하게 기리는 행위나 모습으로 정의하였다. 즉 후손들이 모여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을 기리고 그분의 삶을 회고하며 올바른 삶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박병구, 2003).

조선시대의 『격몽요결』 제의초(祭儀鈔)와 『사례편람』 권 8의 기제(忌祭)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주를 받들어 정침으로 모시기를 청하는 고사식(告辭式)에 ‘추모(追慕)’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제 현○○친속 ○○벼슬 부군이 영원히 돌아가신 때를 맞아 감히 신주께서 정침으로 나아가실 것을 청하기를 공손하게 추모하는 뜻으로 펴니다(今以 顯某親某官府君 遠諱之辰 敢請神主 出就正寢 恭伸追慕).

이를 보면 기일이 되어 돌아가신 조상을 상징하는 신주를 사당에서 정침으로 모셔 내오기를 청하는 자리에 임하는 후손들은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불교의 관점에서 기제(忌祭)는 주기적으로 고인(故人)과 만나는 의례로

이를 행하는 후손들이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은 규범적 형식의 지침 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된다(구미래, 2009).

오늘날 추모의례는 조상의례의 변형된 모습으로 기독교계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문옥표(2007)는 한국인의 경우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조상의 기일에 추도예배 혹은 추모식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된 조상의례를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기독교문화에서는 그 예를 찾기 힘든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현상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도입과 확산이 반드시 유교식 의례 전통을 완전히 해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제례의 변형된 양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이복규(2009)도 한국 기독교의 추모의례는 추도식 혹은 추도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기독교식으로 변형된 기제의 대체의례로 서구 기독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라는 견해를 언급하였다.

고인을 추모하는 의례는 천주교에서도 행해진다. 기념일과 관계된 예식으로서 특정한 성자(聖者)를 추모하는 관습이 있어 왔고, 그 밖의 조상을 함께 추모하는 만성절(萬聖節)이 지켜지고 있다. 이런 기념일에는 조상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것이 통례이다(이복규, 2005). 안혜숙 등(2002)은 종교에 따라 고인을 추모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의례를 가치 있게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유교식의 전통 기제를 중심으로 언급해온 제례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유교식, 불교식, 기독교식, 천주교식 등 각 종교별로 조상의 기일에 그 분을 추모하고 기리는 의례를 통칭하여 추모의례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종교별 추모의례

종교별 추모의례는 유교식 기제(忌祭), 불교식 천도재(薦度齋), 기독교식 추도에배(追悼禮拜), 천주교식 연(煉)미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1) 유교식 기제(忌祭)

유교식 추모의례인 기제를 행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 육신과 함께 영혼이 소멸되어 그 영혼을 위한 제사가 필요하다(두경자, 2000)고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제의 본질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제(忌祭)의 본질

유교식의 제례는 조선조가 시작되고 주자학이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16세기경부터 서서히 정착되어 19세기에 이르면 양반사족의 가문뿐 아니라 일반 평민의 가정에까지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같은 유교식 제례는 장손(長孫)과 지손(支孫)의 위계를 확인하고 종족의 구성원과 그 이외의 사람들을 구별 지으며, 종족 성원들 간의 결속과 단합을 강화함으로써 종법 질서의 유지에 핵심적 기능을 해왔다(문옥표, 2007).

조선조는 성리학에 의한 통치를 위하여 백성이 따를 수 있는 효(孝)라는 가부장적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부모의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적용되는 효의 원리를 통해 국가에 대한 충(忠)을 실천하게 하였다(두경자, 2000).

조선시대 예서(禮書)인 『가례고증』 권 1에는 다음과 같이 제례의 본

질을 보본반시(報本反始)로 설명하고 있다.

<예기> 제의(祭義)에 이르기를 “천하의 예는 시초를 되돌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시초를 되돌아보는 것은 그 근본을 후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응씨(應氏)가 말하기를 “시초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근본에 보답하는 성의를 극도로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기> 교특생(郊特牲)에 이르기를 “만물은 하늘에 근본이 있고 사람은 조상에 근본이 있다. 이 때문에 조상의 신(神)으로써 상제(上帝)에 짝하게 하는 것이다. 교제(郊祭)라는 것은 크게 보본반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보(報)는 예(禮)로써 갚는 것이고, 반(反)은 마음으로 추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記祭義曰 天下之禮 致反始也 致反始 以厚其本也 應氏曰 致反始 所以極吾心報本之誠 郊特牲曰 萬物本乎天 人本乎祖 所以配上帝也 郊之祭也 大報本反始也 陳氏曰 報者酬之以禮 反者追之以心).

이 같은 보본반시(報本反始)라는 제례의 본질에 의거해볼 때 기제는 조상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도리로서 그 분을 추모하는 효의 의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유교식 추모의례인 기제에서 효 사상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제례에 관한 선행연구들(홍현주, 1986; 김명나, 1989; 박수정, 1989; 김인옥, 1997)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제례의 목적이 효에 있다고 하는 결과는 효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효 사상은 오늘날 그 범위가 사회적 개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두경자(2000)는 부모의 사후에는 부모를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부모의 생전에 못다 한 효를 혈연을 초월하여 불우한 노인이

나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인류애로 승화시킴으로써 자손이 베푼 선(善)의 영광이 궁극적으로는 부모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차원 높은 효의 실행이 요구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외면적으로 드러난 제례의 본질이 효라면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제례의 본질은 제액초복(除厄招福)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액초복(除厄招福)은 조상신을 받들고 모셔 제사를 잘 지내면 하늘이 복(福)을 내려 준다고 믿는 것이다(김명자, 1984; 주재용, 1995). 이는 음복(飮福)이라는 제례 후에 이어지는 후손들의 식사에도 반영된다. 이를 보면 제례의 내재적 의의는 조상신을 받들어 많은 복을 받고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는 생자(生者) 본위의 공리적(公利的) 종교의식에 있다고 하겠다(이정우·김연화, 1999). 김계숙(2008)도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받들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사고에서 연유된 종교적인 기능에서 비롯됨을 논의하였다.

정성(精誠)도 본질적으로 기제에서 매우 중요시된다.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마음가짐과 몸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율곡(1536~1584)의 『격몽요결』 제례장(祭禮章)에는 옛날 법식대로 제수와 그 절차를 다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사에 임하는 자손들의 정성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사를 앞두고는 안으로는 치제(致齋)를 하고 밖으로는 산제(散齋)를 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재(齋)는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의미로 목욕재계를 하고 제사를 모시는 대상을 생각하는 가운데 일상의 기거동작을 삼가 조심하면서 차분히 준비에 임하는 것이다. 제례의 정성은 제수 마련에도 내재되어 있다. 송시열(1607~1689)의

『계녀서』 제사 받드는 도리에는 제수를 마련할 때 걱정하지 말고,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며, 티끌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먼저 먹지 않으며 고양이, 개, 벌레, 쥐 등이 더럽히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덕무(1741~1793)의 『사소절』 부의(婦儀)에도 한 그릇의 밥이나 나물국을 가지고도 조상은 죽히 흠향할 수 있으니 제사란 깨끗하게 갖추기를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제수의 많고 적음보다 그를 마련 할 때의 정결과 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보여준다.

## (2) 기제의 절차

유교식 기제의 절차를 이재(1680~1746)의 『사례편람』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제(忌祭)는 축문에 제시되는 휘일부림(諱日復臨)이라는 문구와 같이 조상이 돌아가신 날 첫 새벽에 참석자들이 제복으로 갈아입고 사당에서 신주를 내어서 모시고 정침으로 나아가면서 시작된다. 이에 대해 윤원철(1990)은 일상의 소란으로부터 격리된 또는 아직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시간인 자정(子正)이나 첫 새벽에 제례가 행해지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즉 기일은 일상생활과 다른 특별한 시간에 제사를 행함으로써 인간의 일상사와 차이를 두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절차를 살펴보면 참신(參神)은 사당에서 신주를 내어 모시고 정침으로 와서 제주(祭主)이하 모든 참석자들이 신위에 재배하는 것이다. 강신(降神)은 조상신을 내려 모시는 예로 분향하고 술을 따라 모사(茅沙)에 부어 신이 땅(모사)에 내려 왔음을 상징한다. 이때 신주를 사용하게 되면 참신을, 지방을 사용하게 되면 강신을 첫 순서로 한다. 초헌(初獻)은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이며, 독축(讀祝)은 조상신에게 추모의 마음을 아뢰고 준비한 음식을 흠향하시라는 내용의 서식을 낭독하는 것이다. 아헌(亞獻)은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이며, 종헌(終獻)은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것이다. 유식(侑食)은 조상신에게 음식 드시기를 권하는 예로 제주가 첨작(添酌)을 하고 밥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다. 합문(闔門)은 조상신이 음식 드시는 동안 모든 참석자들이 문밖으로 물러나 기다리는 절차이고, 계문(啓門)은 조상신의 식사가 끝날 무렵 다시 들어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은 후 국을 물리고 승냥을 올리는 것이다. 사신(辭神)은 조상신에게 모든 참석자들이 고별인사를 드리는 것이며, 납주(納主)는 사당으로 신주를 다시 모셔가는 예이다. 끝으로 철(撤)은 진설했던 제사상을 치우는 절차이다. 이와 같이 유교식 기제의 절차는 조상신을 모셔 와서 추모의 뜻을 전하고 음식을 대접한 후 다시 사당으로 모셔가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사례편람』을 보면 기일에는 시제(時祭)나 예제(禩祭)와는 달리 제사 후 참석자들이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준(餽)의 절차는 생략하여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이재(1680~1746)는 기제(忌祭)가 중요한 줄만 알고 기일(忌日)이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평상시와는 달리 술을 마시고 대접하는 것을 절제하고 슬픔의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을 언급하였다.

## 2) 불교식 천도재(薦度齋)

한국불교가 처해온 역사·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생의례를 연구한 구미래(2009)에 의하면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불교는 민간의 삶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어 불교의 사상과 예제(禮制)가 생의 각 단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특히 상례를 비롯한 불교식 제례의 경우는 사찰에 고인(故人)의 영혼을 안치하고 의례를 지내왔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 의례를 비롯한 모든 생활규범이 점차 유교적 질서 속으로 재편되었고, 특히 1398년(태조 7년) 예조의 건의로 불교식 제례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의례공간은 사찰에서 가정으로 점차 바뀌었다. 이는 곧 불교적 생활공간에서 성리학적 생활공간으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후 민간의 일생의례는 유교적 규범 속에서 생활화되었고, 불교식 일생의례는 관례화된 유교의 상·제례에 더하여 치르는 천도재(薦度齋)를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이에 제사 역시 천도의 의미로 수용하고 있으며, 천도재는 유교식 상제(喪祭)의 수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있다. 불교식 추모의례로서 천도재의 본질과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천도재(薦度齋)의 본질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인과화복(因果禍福)의 논리를 바탕으로 업(業)과 윤회(輪廻)의 논리를 설파하는 불교의 교리는 죽음과 사후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현상적 측면에서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사건이며 또 다른 세계 즉 정토(淨土)가 구현화 되었고 윤회의 질서 가운데 업의 상승원리는 수행의 정립과 해탈 및 열반(涅槃)의 세계관을 형성하기도 하였다(정각, 2007).

불교의 생사관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49일 간의 중유(中有)를 지난 후 일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불교에서 화장을 하는 의미 역시 몸은 이승에서 잠시 빌려 입었던 옷으로 보아, 헌옷과 같은 몸을 태움으로써 이승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끊고 새 옷의 주인이 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49재를 치르고 나면 더 이상 고인(故人)을 위한 의례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49재 이후에도 백일재(百日齋)와 1주기·2주기에 소상재(小祥齋)·대상재(大祥齋)를 지낼 수 있도록 상례에 해당하는 의례 기반을 마련해놓고 있다. 또한 49일 또는 만 2년이 지난 후 곧 업(業)에 대한 최대 판결기간이 끝나 윤회(輪廻)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망혼(亡魂)에 대한 의례는 언제까지나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천도(薦度)의 의미이다. 즉 기제(忌祭)는 물론 백중(百中)·열반절(涅槃節)·명절(名節) 등에 행하는 주기적인 합동 천도제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개별 천도제를 다시 치르기도 하는데 고인(故人)을 위한 이들 모든 의례는 천도의 의미로 행해진다. 이에 대해 불교에서는 거듭함으로써 업(業)을 희석시킬 수 있을 뿐더러 이후에 거듭되는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동일한 대상에 대해 몇 번이고 거듭될 수 있는 것이 불교식 천도제의 특징이다. 이처럼 일생의 범주를 벗어나서도 계속되는 의례는 관념적 세계관에 우선하여 생전의 삶을 살았던 실존적 존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민간의 심성을 반영하고 있다. 고인(故人)이 보다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중유(中有) 이후의 재생과 무관하게 거듭될수록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해탈을 통해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신의 생전 업(業)에 따라 다음 생을 받게 된다는 기본 원칙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천도제의 본질적 핵심은 끊임없는 불법을 전달하여 고인 스스로 미혹함에서 벗어나 깨우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다(구미래, 2009).

## (2) 천도제의 절차

불교에서는 위패를 사찰에 모시는 경우 기일과 생일에 맞추어 천도재를 올린다. 그 절차는 사회를 맡은 법사(法師)의 개식 선언으로 시작한다. 다음은 삼귀의례(三歸依禮)로 불(佛)·법(法)·승(僧)의 삼보(三寶)에 돌아가 의한다는 예를 베푼다. 법회(法會)를 주재하는 법주(法主)가 반야심경(般若心經)을 봉독한다. 참석자 모두가 묵도(默禱)를 한다. 고인의 약력보고와 함께 추도문을 읽는다. 법주가 고인의 추도와 유족의 위안을 겸하여 추도사를 읽는다. 참석자들 중 대표가 나와서 유족과 친지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감상(感想)을 행한다. 유족이 먼저 분향하고 다음에 참석자들이 분향을 행한다. 감상의 답례로 유족 대표가 나와서 답사를 한다. 법사가 폐식을 선언하고 마친다(김상혁, 1996; 안혜숙 등, 2002; 임중웅, 2007).

이와 같이 불교는 유입 당시부터 특히 국가나 왕실과 관련된 의식의 정비에 힘을 쏟았으며 조상의 천도재를 발달시켰다. 그러나 이는 사찰에서 법사가 집전하는 천도의식일 뿐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가정의례 즉 가례(家禮)의 불교화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두경자(2000)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가 불교인 사람들의 경우 타종교에 비해 제례행례가 더 전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유교식과 불교식의 혼용 때문이다. 최근 유교식 혹은 전통예식으로 진행하던 가정 제사를 불교식으로 하고자 하는 열망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모델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교계에 통일된 안이 나와 있지는 않다.

### 3) 기독교식 추도예배

유교식 기제에서의 영혼관에서는 영혼은 몸을 떠나서도 지상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저승에 갔다가 다시 온다고도 여겨지지만 기독교인들의 경우 조상의 혼령은 다시 지상에 나와 활동하지 않는다는 세계관을 갖는다(이복규, 2009).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추도예배는 고인(故人)에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것이다. 즉 추도예배는 고인(故人)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는 예배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뿐이라는 믿음에 토대를 둔다. 다음에서 추도예배의 본질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추도예배의 본질

기독교의 추도예배는 마음을 다해 자기 자신을 실존적 근원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김은정, 2006). 돌아가신 영혼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쳐드릴 수 없다고 믿기에 고인에게 절을 하거나 음식을 차려 제공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어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의 뜻을 되새기면서 부끄럽지 않은 자손이 될 것을 권면한다. 즉 추도예배를 통하여 가족들이 공동체로서 연대를 이루고 고인을 회상하면서 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권태환, 1999).

유교식 기제와는 달리 지방이나 신주가 없고 그 대신 고인의 사진을 놓고 진행하거나 그냥 진행하기도 한다. 고인의 영혼을 향해 음식이나 잔이나 절을 드리지 않는다. 음식을 차린다 해도 추도예배 후에 참석자들이 함께 먹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지 고인을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므로 이른바 제수 음식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는다. 간혹 가족 중에서 기독교식

으로만 진행하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질 경우 절은 하지 않지만 음식만이라도 차려놓고 예배하자는 쪽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때는 음식상을 개봉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서 두 의견이 적당하게 절충을 이룸으로써 가족 간의 화해를 유지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한편 추도예배에는 여성도 동등하게 참여한다. 유교식 기제의 경우에는 남성이 그 주체로 참여하고, 여성들은 제수를 마련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기독교식 추도예배에서는 남녀 모두가 자리에 모여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한다(이복규, 2005).

## (2) 추도예배의 절차

기독교의 추도예배 절차는 대체적으로 일반 예배 형식으로 되어있다. 먼저 개식사를 행하고 신앙고백, 찬송, 기도, 성경봉독과 말씀, 기도, 추모, 찬송, 축도 혹은 주기도문 등의 순서를 기본 틀로 하여 일부 가감이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상에는 유교식 기제에서와 같은 축문 읽기가 없다. 추도예배 중 기제의 축문 읽기 순서와 가장 근접한 것이 있다면 추모의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이 추모의 순서에서도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끼리 고인의 이모저모에 대해 회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는 고인을 잘 모르는 후손에게 고인의 미덕을 가르쳐 그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도록 권면(勸勉)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도의 절차상에서 고인을 위한 기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생전의 믿음과 행실로 구원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내용은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국 기독교 추도예배에서 확인되는 추모의 시간이 어느 교단, 어느 가정에서나 있는 것

은 아니다. 가정에 따라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생략하기도 한다. 이 추모의 순서가 들어가느냐의 여부만 제외하고, 현재 모든 개신교 교단, 교회, 가정의 추도예배는 일반 예배에 준하는 형식과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경동교회처럼 절하는 것을 용인하자는 경우도 있고, 일부 가정에서이지만 고인을 위한 기도를 넣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독교의 추도예배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가가례(家家禮)의 양상을 보일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이복규, 2005).

#### 4) 천주교식 연미사

유교의 영향을 받는 전통 민간의례의 경우 고인이 만 2년여에 걸쳐 이루어지는 절차를 겪으면서 조상신으로 신격화되어 제사에서 공경을 받고 후손에게 복을 베풀어주는 존재로 인정된다. 반면 천주교의 경우 고인을 기억하여 지내는 고유한 의례는 조상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제사가 아니라 연(煉)미사나 연도(煉禱)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용어들이 암시하는 바대로 죽은 이는 마지막 부활의 날까지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으면서 살아남은 이들의 도움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존재로 상정된다. 이에 천주교에서는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평생 동안 연도를 행할 것을 권하게 된다(박일영, 2009). 천주교식 연미사의 본질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연미사의 본질

성당에서의 미사는 예수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사이며 흠 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봉헌되는 가장 완전한 제사이다. 따라서 천

주교인들은 미사라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를 통해 천주님의 자녀로 성장한다. 천주교에서는 천주(天主)만이 이 세상과 만물을 주재하는 존재이며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신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아무리 위대한 인간의 사후 존재도 신이 될 수 없고 다만 영혼이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뿐이다(허운석, 2002).

교회는 고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기념하는 성찬의 제사를 봉헌한다.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는 서로가 친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체를 위하여 영신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다른 지체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고인을 위한 미사에서 신자들과 고인의 가족들은 영성체를 행하게 되며, 고인을 위하여 봉헌되는 성찬제사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권장을 받는다. 선택할 부분(기도문, 독서, 보편 지향 기도)을 준비할 때는 마땅히 고인, 고인의 가족, 미사 참석자들을 생각하고 사목적 배려를 하게 된다(한국천주교 주교회의, 2009).

천주교는 200여년 전 제사거부로 많은 순교자들을 냈으나 후에는 종교의 토착화를 모색하는 취지하에 지금까지 유교식 제례를 미풍양속으로 간주하여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를 통하여 천주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영혼을 위해 연도를 행하고 있다(두경자, 2000).

천주교에서는 기일에 가정에서 음식을 차리고 나누는 예식은 죽은 이에 대한 정성과 추모를 위한 것이지 조상신에 대한 신관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사를 일 년에 몇 차례 어떤 음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차리고 거행하는가보다는 내 자신이 어떤 죽음관과 내세관을 갖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즉 천주교에서 유교식의 제사를 인정하

거나 유교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개념은 그것을 공인받은 것이 아니고 천주교의 교리에 부합되지 않는 신관이나 미신적 요소를 가려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으로 올바른 죽음관과 부활관으로 복음화 되어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천주교 가정의 기제는 유일한 제사인 미사에 내재된 사랑의 의미를 고유한 미풍양속 안에서 발견하는 효와 기도의 예식으로서 이해되고 있다(박일영, 2009).

## (2) 연미사의 절차

미사전례의 고유한 특징은 성찬전례에 이르러 뚜렷이 나타난다. 성찬전례는 최후만찬 때에 그리스도께서 빵과 잔을 들고 하신 말씀과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찬전례는 최후만찬의 형식과 절차를 따라 구성되어 있다. 고인을 위한 기도는 성찬전례의 전구(청원기도)편에서 바치며, 여기에 성인들과의 일치기도 및 예물 축복기도가 연결된다. 고인을 위한 기도는 ‘주님, 신앙의 보람을 지니고 저희보다 먼저 평안히 잠든 교우를 생각하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쉬는 모든 이를 행복과 광명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소서.’라고 한다. 사제와 공동체는 이때에 기도를 청한 사람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우를 생각하거나 각자가 기억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고인을 위한 기도가 끝나면 성인들과의 일치기도로 이어 지고, 예물축복기도로 마감된다(이흥기, 2007).

성당에서 행하는 연미사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본받아서 진행되는 성

제(聖祭)이다. 미사는 천주교 최대의 성찬 의식으로 천주를 찬미하고 속죄를 위하여 은총을 기원하는 일종의 제사라 할 수 있다. 기일이 돌아오면 온 가족이 성당에서 연미사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가친척 및 교우들에게도 연락하여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행사가 끝나면 사제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간소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한다. 특히 고인을 위하여 미사를 드리는 일은 파티마의 성모께서 부탁하신 일이라 하여 근래에는 성당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 천주교에서 11월 2일은 일반의 묘제(墓祭)에 해당하는 날로 연옥(煉獄)에 있는 영혼을 위해 미사를 행한다. 또한 추사이망침례(追思已亡瞻禮)라 하여 교우들이 단체로 묘지에 찾아가서 고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드린다(김상혁, 1996; 임중웅, 2007).

한편 천주교 신자의 가정을 살펴보면 천주교에서 조상제사의 시안들이 몇 가지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신자들 가정에서는 수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인위적이고 낯선 형태의 제사를 새로 만들어 지내는 데에 동의하기보다는 집집마다 전통적으로 지내왔던 유교식 제사가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천주교 신자들도 그대로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영수, 2006).

한국 천주교 신자의 과반수가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제사가 개인적 혹은 가족적 행사이므로 의례의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가정 내에서는 여전히 유교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셋째 오랜 기간 제사를 금지했던 천주교회의 태도가 관성(慣性) 때문에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무리한 방식으로 이름뿐인 제사의 형식을 새로 제정하기 위하여 애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교식 제사 형식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천주교 고유의 세계관에 따라 의미를 재해석하는 방식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허운석, 2002). 일례로 천주교식 기제사(忌祭祀)때에 사용할 수 있는 예식서 중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상차림에서 특이한 사항으로 제사상의 중앙에 십자가를 모시도록 하는 점이다. 또한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나서 십자성호를 긋는다. 제주가 조상께 고하는 절차에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다음에는 성서의 말씀을 봉독하는 절차가 이어지고 제사를 마치면서는 주님께 감사하는 성가를 부르도록 한다(박일영, 2009).

### 3. 선행연구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 가운데 추모의례의 실태를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모의례의 기능, 의례의 형식, 대상범위, 주관자와 참석자, 행례의 날짜와 시간 및 장소, 복장과 준비용품, 음식마련, 준비자세, 추모의례로 인한 갈등과 부담감,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1) 추모의례의 기능

이현숙(1983)은 제사의 기능을 5가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제사에 대한 인지(認知)가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다소 약해졌다

해도 제사의 본질적 기능이 선조를 숭배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보고 조상 숭배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둘째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제사 때 이루어지는 친지간의 협동은 혈족을 강조하는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측면으로서 제사는 자자손손 계승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며 제사를 통하여 당대의 구성원임을 확인하고, 한 집안으로서의 친목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제사는 회연(會宴)의 기능을 갖는다. 제사 후 철상(撤床)을 하고 나면 참석한 제관들이 모여 음복을 하게 된다. 즉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상의 넋을 위로하며 제사지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일가친지의 정을 나누며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넷째,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의 넋을 위로하며 선조의 훌륭했던 업적을 후손들에게 들려주어 본받게 하는 교육의 기능도 담당한다. 다섯째, 한국에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유교를 주요이념을 체계로 하며, 유교의 가르침은 곧 조상에 대한 숭경(崇敬)으로 연결된다. 모든 종교를 나약한 인간의 구안처(求安處)로 간주할 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조상신에게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급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신은 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조상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소나마 위안을 삼는 것이다. 따라서 제사는 조상을 섬겨 후손이 복을 받고자 하는 의례로 종교적 기능을 한다.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제례의 기능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5점 만점에 친목도모 및 회연의 기능(3.570점), 교육 및 효의 기능(3.499점), 생활철학의 기능(3.214점), 종교적 기능(2.97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복미 등(2004)의 연구에서는 제사에 대한 주부들의 생각에 대해 질

문하였다. 그 결과 제사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의 화목 도모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와 기타종교에서 가족의 화목 도모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월이 지나도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통하여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점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음을 말해준다.

## 2) 추모의례의 형식

최근 매체들을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조상제례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를 전통 상실의 주요한 지표의 하나로 지적하는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이길표, 1982; 박순천, 1986; 박수정, 1989; 이정우·김명나, 1993; 문옥표, 1998; 이정우·김연화, 1999)에서는 유교식 제례를 행하는 가정이 조사대상의 과반수이상으로 보고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의 조사에서도 제사의 형식에 있어 유교식 78.3%, 기독교식 15.9%, 천주교식 2.7%, 불교식 2.7% 등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종교와 관계없이 여전히 유교식의 제례를 행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김계숙(2008)의 연구에서는 유교식이 가장 많고 종교에 따라 다양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중적인 담론에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제례의 전통이 뿌리 깊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까닭에 이러한 비율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는 식의 해석을 내리기는 어렵다(문옥표, 2007).

### 3) 추모의례의 대상 범위

제례의 변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는 대상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례의 대상은 홍현주(1986)의 연구에서는 4대 봉사, 박수정(1989)의 연구에서는 3대 봉사(奉祀)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2대 봉사(奉祀)가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의 자료에 의하면 기일제사는 연평균 3.2회였으며, 제례의 대상은 2대 봉사(奉祀)가 33.4%, 1대 봉사(奉祀)가 31.6%, 3대 봉사(奉祀)가 20.5%, 4대 봉사(奉祀)가 13.0% 등이었다. 또한 부부 양위(兩位)의 제사를 한 번으로 줄여 한 대의 조상에 대해 일 년에 한 번만 모시는 등 전체적으로 제례의 횟수가 줄고 있음을 밝혔다. 김계숙(2008)의 연구에서는 봉사 대상으로 1대 봉사(奉祀)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제사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은 도시화에 따른 지역적 이동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친족들의 모임을 어렵게 하며 고향에서와 달리 종족집단의 압력으로부터도 멀어지는 측면이 있어 제사의 규모 축소도 자연스럽게 용인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경제적 요인이나 여성의 발언권 신장, 도시적 생활양식의 확산에 따른 편의성과 합리성의 추구, 봉사 대상을 제주로부터 2대 봉사로 한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공포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대상 범위를 기억하는 조상 즉 2대 봉사 정도로 축소하는 것은 직계

가족 단위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제례의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문옥표, 2007).

#### 4) 추모의례의 주관자와 참석자

추모의례의 내용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는 주관자와 참석자의 범위에 있다. 일반적으로 유교식 제례는 남성중에서도 장남이나 장손에 의해 봉사의 권리 및 의무가 독점되고 계승됨으로써 질서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에 유교식 제례를 행하는 경우 제례의 주관자가 장남(장손 및 독자 포함)인 것으로 나타난다(박순천, 1986; 김인옥, 1997; 정복미 등 2004; 김계숙, 2008). 그러나 기독교식 의례를 행하는 집단에서는 약 70% 정도만이 장남이나 장손으로, 나머지는 외부인 8.3%, 차남 7.8%, 가족순환 7.7%, 여성가장 2.8% 등이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제사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두경자(2001)의 연구에서는 제사주관은 어느 종교나 형제자매간 윤회를 희망하였다. 그 순서는 기독교, 무교, 천주교, 불교로써 기독교가 가장 높게 윤회를 원하였고, 장자만이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불교가 가장 높았다.

추모의례의 참석자도 변화되어왔다. 유교식 제례의 경우 이길표(1982)의 연구에서는 제사에 참석할 의무가 있는 친족인 동고조팔촌(同高祖八村)에서 4촌 이내로 나타났으나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형제까지로 참석자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반면 기독교식 의례의 경우 남자들만으로 한정되는 경우는 2.5% 정도뿐으로 96.0% 이상이 모든 가족의 참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모든 가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친족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여성의 참석이 확대되고 있다

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반드시 기독교식의 의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즉 유교식의 제례에서도 전과는 달리 출가한 딸들이 참석하고 절을 하거나 술잔을 올리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문옥표 19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5) 추모의례의 날짜와 시간

이길표(1982)의 연구에서는 유교식 제례인 기제를 지내는 시각은 사망 전날 일몰 후가 40.6%로 가장 많았으며, 종래의 사망 당일 새벽 자시(子時)에 지내는 가정은 11.9%였다. 박수정(1989)의 연구에서는 기제사는 응답자의 33.9%가 사망 전날 해진 뒤에 지낸다고 하였으며, 20.6%는 사망 당일 이른 새벽에 지낸다고 보고하였다.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사망 전날 저녁이 34.7%, 사망 전날 밤이 23.1%, 사망한 날 저녁이 21.9% 등으로 나타났다. 제사 개편안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두경자(2001)의 연구에서는 제사 날짜는 기일 전후 공휴일로 하자는 유통적인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제사 시간은 어느 종교에서나 오후 8~9시경을 가장 적당한 시간으로, 오후 6~7시경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였으며, 주야간 어느 때나 편리한 시간으로 하자는 견해는 기독교, 천주교, 무교, 불교의 순으로써 기독교가 가장 개편적이었다. 김계숙(2008)의 연구에서는 기제는 사망 전날 저녁 9~11시 사이에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면 추모의례는 돌아가신 날 첫 새벽 보다는 가족합의에 따라 편의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사망한 당일 저녁 혹은 일부에서는 사망 전날 저녁에 기제가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 추모의례의 장소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 제사 장소는 방에서 지내는 경우가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청 혹은 거실이 34.6%, 장소 상관없이 때에 따라 다름이 6.0%로 나타났다. 제사 개편안을 조사한 두경자(2001)의 연구에서는 제사 장소는 어느 종교나 집안 행사로 국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기독교는 집안 행사로의 국한과 집밖 행사로의 사회화가 거의 동일 수준에 근접하였다. 집밖 행사로 사회화시키자는 견해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의 순으로 기독교집단이 가장 높고 무교집단이 가장 낮았다.

#### 7) 추모의례 시의 복장

이길표(1982)의 연구에서는 기제 때 입는 옷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깨끗한 평상복이 40.2%, 제사옷(천담복)이 8.8%로 나타났다. 이 중 깨끗한 평상복을 입는다고 한 사람은 여성(45.8%)이 많았고 연령이 적을수록 많았으며, 불교·천주교·기독교집단에서 많았고 유교집단에서 가장 적었다. 반면 제사옷(천담복)은 여성(12.1%)과 66세 이상(20.3%)과 유교집단(18.2%)에서 입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에 따르면 제사복장은 조사대상자의 52.8%가 정장, 31.5%가 평상복을 입는다고 응답했다. 김계숙(2008)의 연구에서는 제사복식으로 양복정장(49.7%)과 평상복(34.1%)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추모의례의 준비용품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신위 모시는 방법에 있어 지방 49.5%, 사

진 15.4%, 지방과 사진 10.8%, 아무 것도 놓지 않음 17.7%, 신주 6.6%로 나타났다. 김계숙(2008)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49%가 지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과 축문의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한문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58.8%, 지방과 축문을 쓰지 않는 경우가 24.3%로 나타났다.

정복미 등(2004)이 제기의 종류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목기가 75.4%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유기가 13.1%, 기타가 11.5%로 나타났다.

#### 9) 추모의례 시의 음식마련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제사 시 마련하는 제수의 종류로 과일 89.3%, 숙채 86.0%, 반 84.6%, 적 79.9%, 병(떡) 78.5%, 포 77.5%, 갹(국) 75.3%, 탕 70.0%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에 의하면 응답자의 81.9%가 고인을 위한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계숙(2008)의 연구에서는 제사음식을 전통제례음식으로 하는 경우가 39.7%, 전통제례음식과 고인이 즐기던 음식을 마련하는 경우가 35.7%로 나타났다.

제사음식 비용에 있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의 조사 결과 현금 혹은 음식으로 상호부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사 개편안을 조사한 두경자(2001)의 연구에서는 제수음식 준비는 기독교집단은 음식상의 생략을, 불교와 무교집단은 중부가 직접 마련을, 천주교집단은 중부가 직접 마련과 맞춤주문/형제분담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김계숙(2008)의 연구에서는 현금으로의 상호부조가 45.5%, 전적으로 제주가정에서의 부

답이 43.4%로 나타났다.

오늘날 여성들의 취업과 사회활동으로 가정에서의 제수 준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제수용 음식의 맞춤이나 구입, 형제들 간의 분담도 많아지고 있다(이정우·김연화, 1999). 인터넷상에는 제사음식을 조리하여 패키지로 배달하는 업자들도 등장하고 있다(문옥표, 2007).

김계숙(2008)의 연구에서는 제례행례의 하위변인인 제사음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형제(며느리)순위, 직업, 출신지역 등이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 중 차남이하보다는 첫째인 경우, 직업 중에는 전업주부나 무직보다 전문관리직인 경우, 출신지역에서 서울과 경기보다는 강원, 충청, 경상 및 제주인 경우 제사음식에 대한 수행이 전통지향적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인 경우, 무교나 기타종교보다는 기독교인 경우 제사음식에 대한 수행이 변화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 추모의례의 준비자세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제례수행을 위한 준비 자세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제사음식은 고양이나 개, 벌레들에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한다(5점 만점에 4.22점), 제사 때 쓰는 그릇은 따로 준비해서 쓴다(3.95점), 제사 전에 집 안팎을 청소한다(3.91점), 제사 준비 시 머리를 빗고 정결히 한다(3.55점), 제사 지내는 사람은 목욕재계하고 준비한다(3.50점), 제사음식을 준비할 때 서로 웃고 말하거나 아이들을 꾸짖지 않는다(3.49점), 제사 지내기 전 제사음식을 먼저 먹지 않는다(3.41점), 3일 전부터 제사 지낼 마음의 준비를 한다(3.36점), 제사 때 입는 옷은 평상시 입는 옷과 구별해서 입는다(2.9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면 제

례수행의 준비에 있어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제례에 쓰이는 음식, 그릇, 공간 등에 청결과 정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 11) 추모의례로 인한 갈등이나 부담

문옥표(2007)는 관행상으로 제례는 여전히 부계조상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노부모봉양 및 봉제사와 관련해 장남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인식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균분상속제의 실시, 호주제의 폐지, 여성 종중원 자격 인정 등의 사회경제적, 제도적 변화와 관행상의 괴리는 제례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경자(2000)는 제사는 장남 집에서 맏며느리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여 반드시 야간에 친족의 모임을 주관해야 한다는 기본 골격이 아직도 유지됨으로써 현대인의 정서와 생활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제사에 관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미 현대적 삶의 방식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 젊은 층으로 갈수록 참제(參祭) 기피현상이 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현대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덕적인 죄책감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됨을 지적하였다.

한편 두경자(2001)의 연구에서는 제사의 애로점으로 남성은 참석 불가능, 비용, 음식 준비의 순을, 반면 여성은 음식 준비, 참석 불가능, 비용의 순을 보여 음식 준비는 여전히 여성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 12) 지향하는 추모의례

우리나라의 유교식 제례를 검토한 두경자(2000)는 생존경쟁과 시간제약이 심하여 살기에 더욱 급급해질 후대에 가서는 엄격하고 시간을 길게 필요로 하는 제례의식은 지속되기 힘들게 되어 제사가 소멸되는 위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변화의 방향으로 첫째, 후대의 생활에 맞는 봉사범위와 참석자의 범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봉사범위는 부모 1대로만, 참석자는 고인의 자녀로만 한정하여 제사를 지내는 자녀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까지로 한정하거나 건강하더라도 노쇠하여 며느리에게 제사의 짐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 연령 즉 70세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오늘날 외아들이나 외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사주관자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외아들인 경우 부모와 장인장모를, 외딸인 경우는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제사를 모두 봉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주관자도 형제자매가 동등하게 윤회를 하여 다 같이 자식 된 도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어렵게 제수준비를 하는 것에 비해 제사는 잠시 동안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사를 주관하는 가정에서는 허탈감 내지는 제사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쉽고 제수음식 마련과 뒤처리 등으로 인한 가사노동부담과 일상식과는 다른 제수음식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음도 지적하였다. 즉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고 복잡한 방법으로 진설한다는 것은 효율중시의 현대사회에서 시간, 경제, 에너지 등의 낭비이며 허례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제사의 의미를 형제자매가 모여 부모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이라고 볼 때 제사를 반드시 가정 안의 행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혼례를 교회나 예식장에서 행하고, 장례를 가정

밖 영안실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제사도 가정 밖에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형제자매가 조출한 음식점에 모여 간단한 제례를 행한 후 회연의 자리를 가질 수도 있으며 절, 교회, 성당 등 종교기관에 제사를 위임하고 함께 참석하여 의의를 새겨 볼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제사 날짜와 시간도 사망한 날이나 사망전날 저녁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가까운 공휴일을 정하여 행하거나 낮에도 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융통성이 제례에 고려될 때 형제자매간의 친목 또는 자녀교육에 대한 새로운 제례의 기능이 형성될 것이며 부모에 대한 사후의 효가 단절됨이 없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논의하였다.

정복미 등(2004)은 앞으로의 제사에 대한 주부들의 의식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제사는 내려오는 법도에 따르겠다(37.0%), 본인 나름대로 정성껏 모시겠다(35.4%),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행하겠다(9.5%), 어른이 생존하실 동안 하시는 대로 하겠다(7.4%), 어른이 생존하신 중이라도 차차 추도식 형태로 바꾸겠다(5.4%)는 응답을 나타내 일부에서는 기존의 의례형식이 그대로 지속되기도 하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성을 갖추되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간소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 예견됨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40~50대 중년기 주부 40명으로 무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각 종교별로 10명씩을 선정하였다. 중년기 주부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직계 가족 단위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제례 현상(문옥표, 2007) 속에서 이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남편과 더불어 주부의 역할이 커지게 된 점(문옥표 19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을 감안한 것이다.

둘째, 추모의례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과 가족 간 갈등의 요소나 부담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결혼 년수가 10년 이상인 40~50대의 연령이어야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응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앞으로의 추모의례의 모습을 예견하고 그를 토대로 지향해나가야 할 추모의례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녀세대가 청소년기 이상인 중년기 주부들이 어머니세대의 견지에서 실천 가능한 추모의례의 대안과 추모의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조사대상자는 본 연구자와 친분이 있어서 연구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

되거나 선택된 조사대상자 및 기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는 스노우볼 (snowball) 방식을 통해 2009년 8월 1일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실시되었다.

연구자와 친분이 있었던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사대상자의 경우 면접초기 부분은 라포 형성을 위한 시간으로 할당되었다. 이때 연구자는 조사대상자와 동일한 중년기 주부의 입장에서 추모의례의 실상과 인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모의례에 대한 가치관과 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지향하는 방향에 관련된 견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조사는 사전에 약속을 하여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기초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공식적인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 이상이었고, 한 사례 당 평균 2회 정도의 면담기회를 가졌다. 면담의 모든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고 중요한 상황은 따로 메모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후 면담 내용을 모두 타이핑하여 자료화하였으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전화 통화로 자료를 보완하였다.

##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내용은 크게 개인 및 가족에 관련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추모의례의 실태, 향후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 등의 4개 부분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개인 및 가족사항에는 조사대상자의 연령, 직업형태, 며느리 순위, 최종 학력, 결혼 년수, 주부와 가족(남편, 시댁)의 종교, 동거가족, 가정의 월평균소득, 주부와 남편의 본적(고향), 자녀의 수와 성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에서는 추모의례의 의미, 추모의례를 행하는 기능, 추모의례문화의 지속여부에 대한 견해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추모의례 실태에 관한 사항으로는 박순천(1986), 김인옥(1997), 김계숙(2008) 등의 논문에서 제시되었던 항목을 중심으로 추모의례의 형식과 주관자, 대상 범위, 참석자, 추모의례의 장소와 일시, 참석 시 복장, 준비용품, 음식준비여부와 마련방법, 추모의례준비를 위한 가족의 자세 등을 질문하였다. 또한 추모의례의 형식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및 조정방안을 파악하였으며, 추모의례로 인한 비용, 시간, 가사노동 등의 부담감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다.

향후 중년기 주부들이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자녀세대의 추모의례 이행에 대한 기대, 앞으로 자녀세대가 영위 하였으면 하는 추모의례의 모습, 자녀세대를 위한 추모의례 교육의 주체와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2009년 10월 25일부터 2009년 11월 10일까지 타이핑되어 자료화된 면담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이 다양하게 나타난 조사내용들은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분류하여 동일한 경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인식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함으로써 일반성과 특수성의 견해를 모두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의

특성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과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인 결과와 결론을 도출해냈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IV-1>과 같다. 조사대상자 주부의 연령은 40대가 14명, 50대가 26명으로 평균 연령은 51.3세였다. 직업형태는 전업주부 19명, 자영업 11명, 종일제 근무 7명, 시간제 근무 3명으로 직업을 가진 주부 21명, 전업주부 19명으로 이루어졌다. 며느리순위에 있어서는 맏며느리 18명, 외며느리 2명이었고, 둘째며느리 이하가 20명이었다. 학력에 있어서는 중졸 3명, 고졸 18명, 대졸 17명, 대학원졸 2명으로 고졸 이하가 21명, 대졸 이상이 19명이었다.

주부의 종교는 본 연구자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교를 각각 10명으로 표집한 반면 남편의 종교는 무교 13명, 불교 10명, 기독교 9명, 천주교 7명, 유교 1명이었으며, 시댁의 종교는 불교 14명, 기독교 11명, 무교 8명, 천주교 5명, 유교 2명이었다. 무교를 제외하면 남편과 시댁의 종교가 모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의 순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통계청(2005)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우리나라 종교의 유형별 분포와 일치한다.

평균 결혼년수는 24.3년이였다. 동거가족에 있어서는 남편+자녀인 경우가 35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남편+자녀+시부모인 경우 2명, 남편만인 경우 1명, 남편+자녀+시부모+시댁형제인 경우 1명, 남편+자녀+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주부 연령	직업 형태	머느리 순위	주부 학력	주부 종교	남편 종교	시대 종교	결혼 년수	동거가족	월 평균 소득	주부 본적	남편 본적	자녀의수		
													남	여	합
사례1	47	자영업	만머느리	고졸	무교	무교	무교	14	남편+자녀+시부모	300	경기	충청	1	1	2
사례2	48	전업 주부	둘째이하	대졸	무교	무교	무교	25	남편+자녀	400	경상	경상	1	1	2
사례3	50	자영업	만머느리	대졸	무교	무교	기독교	23	남편+자녀	300	전라	전라	2	·	2
사례4	55	자영업	만머느리	고졸	무교	무교	기독교	20	남편+자녀	300	경사	경상	2	1	3
사례5	47	자영업	둘째이하	대졸	무교	무교	천주교	10	남편+자녀	500	경기	충청	·	1	1
사례6	48	전업 주부	둘째이하	고졸	무교	무교	무교	22	남편+자녀	400	서울	경상	1	1	2
사례7	52	전업 주부	만머느리	고졸	무교	무교	무교	30	남편+자녀	400	경기	경기	1	1	2
사례8	42	전업 주부	둘째이하	대졸	무교	무교	불교	13	남편+자녀	400	서울	서울	2	·	2
사례9	54	종일제 근무	만머느리	중졸	무교	불교	불교	30	남편+자녀	400	전라	전라	1	1	2
사례10	47	종일제 근무	둘째이하	고졸	무교	무교	기독교	24	남편+자녀	300	전라	충청	2	·	2
사례11	55	시간제 근무	둘째이하	대학 원졸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28	남편+자녀	500	전라	경상	1	1	2
사례12	47	자영업	외머느리	고졸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21	남편+자녀	200	강원	경상	2	·	2
사례13	58	전업 주부	만머느리	중졸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33	남편+자녀	200	전라	전라	2	·	2
사례14	53	자영업	둘째이하	대졸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28	남편+자녀	300	경상	경상	·	2	2
사례15	59	전업 주부	둘째이하	고졸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27	남편+자녀	400	충청	경기	2	1	3
사례16	54	자영업	둘째이하	중졸	기독교	기독교	유교	25	남편+자녀	500	전라	전라	1	1	2
사례17	50	자영업	만머느리	대졸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25	남편+자녀	500	서울	서울	1	2	3
사례18	47	전업 주부	만머느리	고졸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21	남편+자녀	500	경기	경기	1	2	3
사례19	54	종일제 근무	만머느리	대졸	기독교	무교	무교	19	남편+자녀	500	전라	전라	1	·	1
사례20	53	자영업	만머느리	고졸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25	남편+자녀	300	충청	충청	2	·	2

<표 IV-1> (계속)

구분	주부 연령	직업 형태	머느리 순위	주부 학력	주부 종교	남편 종교	시댁 종교	결혼 년수	동거가족	월 평균 소득	주부 본적	남편 본적	자녀수		
													남	여	합
사례21	59	전업 주부	외머느리	고졸	천주교	천주교	무교	26	남편+자녀	200	서울	서울	2	1	3
사례22	54	자영업	둘째이하	대졸	천주교	천주교	불교	25	남편+자녀	300	경상	전라	1	1	2
사례23	50	전업 주부	둘째이하	고졸	천주교	천주교	천주교	26	남편+자녀	400	서울	전라	1	1	2
사례24	43	시간제 근무	만머느리	대졸	천주교	천주교	천주교	17	남편+자녀	400	경기	서울	1	1	2
사례25	41	종일제 근무	만머느리	대졸	천주교	천주교	천주교	9	남편+자녀	500	경상	충청	1	1	2
사례26	48	전업 주부	둘째이하	대졸	천주교	무교	무교	23	남편+자녀	500	서울	경상	2	1	3
사례27	46	종일제 근무	둘째이하	고졸	천주교	무교	불교	20	남편+자녀	200	충청	서울	·	2	2
사례28	51	전업 주부	둘째이하	고졸	천주교	천주교	불교	27	남편+자녀	500	경상	경상	2	·	2
사례29	54	전업 주부	만머느리	대졸	천주교	천주교	불교	27	남편+자녀	400	서울	서울	1	1	2
사례30	55	자영업	둘째이하	대졸	천주교	무교	무교	25	남편+자녀	300	경상	경기	2	·	2
사례31	56	전업 주부	둘째이하	대졸	불교	불교	천주교	32	남편+자녀	400	경상	서울	1	1	2
사례32	52	전업 주부	만머느리	고졸	불교	불교	불교	31	남편	100	서울	서울	2	·	2
사례33	59	전업 주부	만머느리	대졸	불교	유교	유교	36	남편+자녀	300	서울	충청	1	1	2
사례34	55	전업 주부	둘째이하	고졸	불교	불교	불교	27	남편+자녀 +친정부모	200	경상	서울	1	1	2
사례35	55	종일제 근무	둘째이하	고졸	불교	불교	불교	31	남편+자녀	200	전라	전라	2	·	2
사례36	57	전업 주부	만머느리	대졸	불교	불교	불교	32	남편+자녀 +시부모	400	경기	경기	1	1	2
사례37	49	시간제 근무	둘째이하	고졸	불교	불교	불교	22	남편+자녀	300	강원	서울	1	1	2
사례38	45	종일제 근무	둘째이하	고졸	불교	불교	불교	22	남편+자녀 +조카	100	경기	서울	1	1	2
사례39	51	전업 주부	만머느리	대졸	불교	불교	불교	24	남편+자녀	100	충청	충청	2	·	2
사례40	50	전업 주부	만머느리	대학 원졸	불교	불교	불교	26	남편+자녀	500	충청	제주	1	1	2

조카인 경우가 1명이었다. 자녀의 수는 2명인 가정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3명인 가정이 6명, 1명인 가정이 2명이었다.

가정의 소득은 100만 원대부터 500만 원대 이상까지 분포를 보였는데 월평균 소득의 평균은 약 347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가계동향에서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347만 6천원이었던 점과 거의 일치한다.

주부의 본적(고향)은 서울 9명, 경상 9명, 전라 8명, 경기 7명, 충청 5명, 강원 2명이었으며, 남편의 본적(고향)은 서울 11명, 경상 8명, 전라 8명, 충청 7명, 경기 5명, 제주 1명이었다.

## 2.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추모의례의 의의와 기능, 추모의례문화의 지속여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표 IV-2).

### 1) 추모의례의 의의에 대한 인식

중년기 주부들이 인식하는 추모의례의 의의는 조상을 향한 후손의 정성의 표현(21개 사례)과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정(情)의 문화(14개 사례)에 있었다. 이외에 효를 실천하는 도리로 인식이 되는 사례(5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종교가 불교인 주부들(사례31,32,33,34,35,36,39)에게서 추모의례가 정성의 표현이라는 인식이 보다 많이 나타났다.

<표 IV-2>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구 분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례	례	례	례	례	례	례	례	례	례	례	례	례	례	례	례	례	례	례	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 모 의 례 의 의	추모의례는 효를 실천하는 도리이다		○			○					○										
	추모의례는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정(情)의 문화이다	○						○	○			○		○		○			○		○
	추모의례는 조상을 향한 후손의 정성의 표현이다			○	○		○			○			○		○		○	○		○	
추 모 의 례 의 기 능	효의 근본을 일깨우는 자녀교육의 계기가 된다				○																
	조상의 훌륭한 업적과 정신을 후세에 전할 수 있다																				
	가족들의 화목과 협동을 도모 하게 된다		○			○			○		○				○		○		○		○
	가족들이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			○			○						○		○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						
	조상의 교훈과 유지를 기억하고 보다 열심히 생활하게 된다													○	○						○
	공경을 다하는 후손은 복을 받게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							○												
추 모 의 례 문 화 의 지 속 여 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모습대로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			○										
	점차 형식이나 절차는 축소되면서 간소화된 모습으로 지속될 것이다				○	○	○		○	○		○	○	○		○	○	○	○	○	○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추모의례문화가 등장할 것이다		○																		
일부 사람들에게는 추모의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		○												○						



## 2) 추모의례의 기능에 대한 인식

추모의례를 행하는 기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면접대상 중년기 주부들은 가족들의 화목과 협동을 도모하게 된다(10개 사례), 가족들이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9개 사례)는 측면에의 답변을 많이 제시했다. 다음으로 조상의 교훈과 유지를 기억하고 보다 열심히 생활하게 된다(7개 사례), 효의 근본을 일깨우는 자녀교육의 계기가 된다(7개 사례), 공경을 다하는 후손은 복을 받게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4개 사례),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2개 사례), 조상의 훌륭한 업적과 정신을 후세에 전할 수 있다(1개 사례)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 3) 추모의례문화의 지속여부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에서 추모의례문화의 지속여부에 대한 견해를 질문한 결과 점차 형식이나 절차는 축소되면서 간소화된 모습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34개 사례). 그 외의 응답으로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추모의례문화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3개 사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모습대로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2개 사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추모의례문화가 등장할 것(1개 사례)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상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면접대상 중년기 주부들 중 많은 이들이 추모의례를 조상을 향한 정성의 표현으로, 조상을 기리는 정(情)의 문화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모의례의 기능에 대해서는 추모의례를 통해 가족들이 화목과 협동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점 그리고 조상의 교훈과 유지를 기억하고 열심히

생활하게 되며, 효의 근본을 일깨우는 자녀교육의 계기가 된다는 점으로 인식이 집약된다. 이는 김인옥(1997)과 정복미 등(2004)의 연구에서 가족들 간 친목도모 및 회연의 기능, 교육 및 효의 기능 등에서 제례의 기능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한편 중년기 주부들이 향후 추모의례문화의 지속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추모의례의 형식이나 절차는 점차 축소되면서 보다 간소화된 모습의 추모의례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정기적으로 조상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정성이 담긴 정(情)의 문화로서의 추모의례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금 상기하면서 가족의 공동체적 화합과 효 교육의 장으로써 추모의례의 긍정적 기능이 실현될 수 있는 바람직한 추모의례모델 제시의 필요성이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과제로 부각된다고 하겠다.

### 3. 추모의례의 실태

중년기 주부 가정의 추모의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추모의례의 형식을 기준으로 주관자, 대상 범위, 참석자, 장소와 일시, 참석 시 복장, 준비용품, 음식준비방법과 비용부담, 추모의례준비를 위한 가족의 자세, 추모의례의 형식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과 조정방안, 추모의례로 인한 부담감의 측면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 1) 추모의례의 형식과 주관자

<표 IV-3>을 보면 추모의례의 형식은 유교식 24개 사례, 기독교식 9개 사례, 유교식+천주교식 3개 사례, 유교식+불교식 2개 사례, 천주교식 1개 사례, 불교식 1개 사례로 나타났다. 이중 유교식은 전통적인 유교의 기제 절차로, 기독교식은 추도예배로 추모의례가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식+천주교식은 유교식 기제로 추모의례를 행하면서 위령기도와 가족기도를 드린다. 유교식+불교식은 유교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절의 형식은 불교식으로 행하며, 철상을 하기 전 반야심경을 독송한다(사례35). 사례36의 경우는 유교식+불교식 추모의례이지만 전반적으로 유교식 기제를 행하면서 철상 전에 반야심경만 독송한다. 천주교식은 성당에서 연미사로 추모의례를 행하는 경우, 불교식은 추모의례를 사찰에서 천도재로 이행하는 경우이다.

추모의례의 주관자는 남편과 주부인 경우가 18개 사례(면접대상자의 남편이 장남인 경우 13개 사례, 둘째 이하인 경우 3개 사례, 독자인 사례 2개 사례), 아주버님인 경우(면접대상자의 남편이 둘째 이하) 11개 사례, 시어머님인 경우 6개 사례, 시아버님인 경우 2개 사례, 시댁형제들이 돌아가며 주관하는 경우 2개 사례, 시댁의 장자와 장손이 돌아가며 주관하는 경우가 1개 사례였다.

다음으로 추모의례의 형식과 주관자를 연관을 지어 살펴보면 유교식 추모의례의 주관자는 아주버님 10개 사례, 남편과 주부 8개 사례, 시어머님 4개 사례, 시아버님 2개 사례였다. 기독교식 추모의례의 주관자는 남편과 주부 7개 사례, 시댁형제들이 돌아가며 주관하는 경우가 2개 사례였다. 기독교식 추모의례의 경우 특이한 점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의례

<표 IV-3> 추모의례의 형식별 주관자, 대상범위 및 참석자

사례	형식	주관자	머느리 순위	대상 범위	남편과 주부 외의 참석자				
					자녀	시부모님	형제자매와 배우자	사촌형제와 배우자	조카
사례1	유교식	시아버님	만머느리	1대조	○		○		
사례2	유교식	아주버님	둘째이하	2대조		○	○		○
사례3	유교식	남편과 나	만머느리	1대조			○		
사례4	유교식	남편과 나	만머느리	1대조	○				
사례5	유교식	시아머님	둘째이하	2대조		○	○		○
사례6	유교식	시아머님	둘째이하	2대조	○	○	○		
사례7	유교식	남편과 나	만머느리	4대조	○		○	○	
사례8	유교식	아주버님	둘째이하	3대조			○	○	
사례9	유교식	남편과 나	만머느리	1대조	○		○		
사례10	유교식	아주버님	둘째이하	3대조	○		○	○	
사례16	유교식	아주버님	둘째이하	4대조			○		
사례22	유교식	아주버님	둘째이하	3대조	○	○	○		
사례26	유교식	아주버님	둘째이하	2대조	○	○	○		○
사례27	유교식	시아머님	둘째이하	2대조	○	○	○		○
사례28	유교식	아주버님	둘째이하	2대조	○		○		○
사례29	유교식	시아머님	만머느리	1대조	○		○		
사례30	유교식	아주버님	둘째이하	3대조	○		○	○	
사례32	유교식	남편과 나	만머느리	3대조	○	○	○	○	
사례33	유교식	남편과 나	만머느리	4대조	○		○		
사례34	유교식	아주버님	둘째이하	3대조			○		

<표 IV-3> (계속)

사례	형식	주 관 자	며느리 순위	대상 범위	남편과 주부 외의 참석자				
					자녀	시부모님	형제자매와 배우자	사촌형제와 배우자	조카
사례37	유 교 식	시아버님	둘째이하	3 대조	○	○	○	○	○
사례38	유 교 식	아주버님	둘째이하	3 대조	○		○	○	
사례39	유 교 식	남편과 나	만며느리	4 대조	○		○		
사례40	유 교 식	남편과 나	만며느리	3 대조	○		○	○	
사례11	기독교식	시댁 형제들이 돌아가며	둘째이하	2 대조			○		
사례12	기독교식	남편과 나	외며느리	2 대조	○	○	○		
사례13	기독교식	남편과 나	만며느리	1 대조	○		○		
사례14	기독교식	남편과 나	둘째이하	1 대조			○		
사례15	기독교식	남편과 나	둘째이하	1 대조	○				
사례17	기독교식	남편과 나	만며느리	1 대조	○		○		
사례18	기독교식	시댁 형제들이 돌아가며	만며느리	1 대조	○	○	○		○
사례19	기독교식	남편과 나	만며느리	1 대조	○	○	○		
사례20	기독교식	남편과 나	만며느리	1 대조	○		○		
사례21	유교식 + 천주교식	남편과 나	외며느리	3 대조	○				
사례23	유교식 + 천주교식	장자·장손이 돌아가며	둘째이하	4 대조	○	○	○	○	○
사례24	유교식 + 천주교식	시어머님	만며느리	1 대조		○	○		
사례35	유교식 + 불 교 식	아주버님	둘째이하	3 대조			○	○	○
사례36	유교식 + 불 교 식	남편과 나	만며느리	2 대조	○		○		
사례25	천주교식	시어머님	만며느리	4 대조		○	○	○	○
사례31	불 교 식	남편과 나	둘째이하	1 대조	○				

를 주관 즉 남편의 형제순위가 둘째 이하여도 의례의 주관자가 되며(사례14,15), 만며느리인 주부가 남편을 대신해 의례에서 주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사례19). 유교식+천주교식 추모의례의 주관자는 시어머님 1개 사례, 남편과 주부 1개 사례, 시댁의 장님과 장손이 돌아가며 주관하는 경우 1개 사례로 나타났다. 유교식+불교식의 추모의례 주관자는 아주머님 1개 사례, 남편과 주부 1개 사례였다. 천주교식 추모의례의 주관자는 시어머님이 이행하는 1개 사례로 나타났다. 불교식 추모의례의 주관자는 남편과 주부가 이행하는 1개 사례로 기독교식에서와 유사하게 남편의 형제순위가 둘째 이하여도 불심(佛心)이 깊은 사람이 제반 의례를 결정하는 주관을 담당하는 경우였다(사례31).

이상을 보면 면접대상 중년기 주부 가정의 추모의례의 형식은 유교식이 60.0%를 차지했으며, 그 나머지는 유교식과 천주교식 혹은 불교식의 결합이 12.5% 그리고 기독교식, 천주교식, 불교식 등 전적으로 종교별 추모의례 절차에 의거하는 형식이 27.5%로 나타났다. 여기서 외면적으로는 유교식 추모의례로 보일 수 있는 사례가 일부에서는 유교식+천주교식 혹은 유교식+불교식의 접목으로 변화됨에 주목해야 된다고 본다. 문옥표(2007)도 제례의 전통이 뿌리 깊게 유지되고 있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한편 주관자에 있어서 장남이나 독자가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형제들의 종교가 일치되는 경우 기독교식에서는 시댁형제들이 돌아가며 주관자가 되었다. 유교식+천주교식에서는 시댁의 장자와 장손이 돌아가며 주관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형제순위가 둘째 이하여도 신앙적인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추

모의례의 주관자가 되었으며, 주부가 남편보다 신앙심이 깊은 경우에는 주관자로서의 역할이 더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 2) 추모의례의 대상 범위

<표 IV-3>에서 보면 추모의례의 대상 범위는 1대조까지가 14개 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대조 11개 사례, 2대조 9개 사례, 4대조 6개 사례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례의 대상으로 2대가 33.4%, 1대가 31.6%로 나타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의 조사보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제의 봉사 대상으로 1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김계숙(2008)의 연구결과와는 맥락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추모의례의 대상범위를 추모의례의 형식과 연관 지어 본 결과 유교식 추모의례는 3대조 9개 사례, 2대조 6개 사례, 1대조 5개 사례, 4대조 4개 사례로 나타났다. 유교식+천주교식 추모의례는 1대조 1개 사례, 3대조 1개 사례, 4대조 1개 사례로 나타났고, 유교식+불교식 추모의례는 2대조 1개 사례, 3대조가 1개 사례였다. 기독교식 추모의례는 1대조 7개 사례, 2대조 2개 사례였고, 천주교식 추모의례는 4대조 1개 사례, 불교식 추모의례는 1대조 1개 사례였다. 이를 보면 유교식에서는 3대조를, 기독교식에서는 1대조를 대상범위로 하여 상대적으로 추모의례가 행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 3) 추모의례의 참석자

<표 IV-3>을 보면 전반적으로 추모의례에 참석하는 가족으로는 남편과 주부 외에 자녀 그리고 남편의 형제자매와 배우자가 대표적이었다. 이

는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 제례의 참석범위가 형제까지로 많이 나타난 결과와 부합된다. 한편 2대조 추모의례의 경우 시부모님과 조카까지 참석하며, 3대조 이상의 경우 남편의 사촌형제와 배우자도 추모의례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4) 추모의례의 장소와 일시

<표 IV-4>을 보면 추모의례의 장소는 유교식 추모의례의 경우 주관자 집의 거실이나 안방에서 이루어지며, 유교식+천주교식, 유교식+불교식 의 경우에는 주관자 집의 거실에서 이행되고 있었다. 기독교식 추모의례는 주관자 집의 거실이나 안방 혹은 봉안당에서 행해지고 있다. 천주교식 추모의례는 성당의 성전에서, 불교식 추모의례는 사찰의 법당(제사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였다.

추모의례의 일시는 유교식, 유교식+천주교식, 유교식+불교식(사례35)의 추모의례는 고인이 돌아가신 전날 저녁(9~12시) 혹은 돌아가신 날 저녁(8~12시)에, 유교식+불교식(사례36)은 돌아가신 날 오전 6시에, 사찰에서의 불교식과 성당에서의 천주교식 추모의례는 돌아가신 날 저녁에 이행되고 있었다. 반면 기독교식 추모의례는 돌아가신 날 저녁(7~8시)이나 돌아가신 전날 저녁 혹은 돌아가신 날을 앞둔 토요일에 행하고, 봉안당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전날 오전에 행해졌다. 이를 종합해보면 추모의례는 전반적으로 돌아가신 전날 행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제례를 고인이 사망한 전날 저녁에 주로 지낸다고 한 연구들(이길표, 1982; 박수정, 1989; 김인옥, 1997; 김계숙, 2008)의 보고와 일치한다.

<표 IV-4> 추모의례의 형식별 장소와 일시 및 참석복장

사례	형식	장소	일시	참석복장
사례1	유 교 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전날 11시	정장, 양복
사례2	유 교 식	시댁 거실	돌아가신 전날 10시	양복, 평상복
사례3	유 교 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날 8시	외출복, 평상복
사례4	유 교 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전날 9시	양복, 평상복
사례5	유 교 식	시댁 거실	돌아가신 날 저녁	양복, 간편복
사례6	유 교 식	시댁 거실	돌아가신 전날 저녁	정장, 평상복
사례7	유 교 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전날 9시	양복, 간편복
사례8	유 교 식	시댁 거실	돌아가신 전날 9시	양복, 정장
사례9	유 교 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전날 10시	양복, 평상복
사례10	유 교 식	시댁 거실	돌아가신 전날 저녁	정장, 평상복
사례16	유 교 식	시댁 거실	돌아가신 전날 저녁	정장, 검소한 옷차림
사례22	유 교 식	시댁 안방	돌아가신 전날 9시	양복, 평상복
사례26	유 교 식	시댁 거실	돌아가신 날 8시	양복, 편한 복장
사례27	유 교 식	시댁 거실	돌아가신 전날 12시	정장, 평상복
사례28	유 교 식	시댁 거실	돌아가신 날 9시	양복, 편한 복장
사례29	유 교 식	시댁 거실	돌아가신 전날 10시	정장, 한복
사례30	유 교 식	시댁 안방	돌아가신 전날 9시	양복, 편한 복장
사례32	유 교 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날 9시	정장, 평상복, 한복
사례33	유 교 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날 8시	정장, 천담복
사례34	유 교 식	시댁 거실	돌아가신 전날 10시	정장, 평상복

<표 IV-4> (계속)

사례	형식	장소	일시	참석복장
사례37	유 교 식	시택 거실	돌아가신 전날 12시	정장, 한복, 간편복
사례38	유 교 식	시택 거실	돌아가신 전날 12시	양복, 양장, 한복
사례39	유 교 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전날 저녁	정장, 한복, 평상복
사례40	유 교 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전날 12시	양복, 정장
사례11	기독교식	시택 거실	돌아가신 날을 앞둔 토요일	정장, 양복, 평상복
사례12	기독교식	시택 안방	돌아가신 날 7시	양복, 정장
사례13	기독교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날 저녁	간편복
사례14	기독교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날 8시	양복, 정장, 평상복
사례15	기독교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날 저녁	보통 옷차림
사례17	기독교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날 저녁	정장
사례18	기독교식	봉 안 당	돌아가신 전날 오전	단정한 복장
사례19	기독교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전날 9시	정장
사례20	기독교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전날 저녁	간편복
사례21	유교식+ 천주교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전날 저녁	단정한 복장
사례23	유교식+ 천주교식	시택 거실	돌아가신 전날 12시	양복, 정장, 한복
사례24	유교식+ 천주교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전날 저녁	양복, 단정한 복장
사례35	유교식+ 불 교 식	시택 거실	돌아가신 전날 10시	양복, 정장
사례36	유교식+ 불 교 식	우리집 거실	돌아가신 날 오전 6시	양복, 정장
사례25	천주교식	성당의 성전	돌아가신 날 저녁	양복, 정장
사례31	불 교 식	사찰의 제사실	돌아가신 날 저녁	양복, 범복바지

#### 5) 추모의례의 참석복장

<표 IV-4>에서 보면 추모의례 참석 시의 복장은 남편의 경우 거의 모든 사례에서 양복 혹은 정장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부의 경우 평상복이나 정장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유교식 추모의례에서 일부 한복(사례33,38)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시아버님은 양복이나 정장을, 시어머님은 평상복이나 정장을 착용하는데 일부에서는 한복(사례 23,29,32,37,39)을 착용하였다. 다른 가족들은 추모의례 참석 시 정장이나 양복을 입었다.

#### 6) 추모의례의 준비용품

<표 IV-5>를 보면 추모의례를 위해 준비하는 용품은 유교식 추모의례를 행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병풍, 신주나 지방, 상, 촛대, 제기 등이었다. 유교식+천주교식 추모의례에서는 제례용품 외에 십자가, 기도서, 성가를, 유교식+불교식 추모의례에서는 유교식과 같은 제례용품 외에 반야심경을 준비하였다. 기독교식 추모의례에서는 성경과 찬송가가 준비되었다. 성당에서의 천주교식 추모의례에서는 미사 준비물과 영적예물을, 사찰에서의 불교식 추모의례에서는 제물과 대중공양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준비용품 가운데 신주나 지방은 유교식 23개 사례, 유교식+불교식 2개 사례, 유교식+천주교식 1개 사례에서 추모의례 시 사용되고 있었는데 신주보다는 지방이 대체적으로 많이 쓰였다. 사진은 40개 사례 중 유교식 4개 사례, 유교식+천주교식 1개 사례에서만 사용되었다. 축문의 경우 유교식 11개 사례, 유교식+천주교식 1개 사례에서, 유교식+불교식 1개 사례에서 사용되었다.

<표 IV-5> 추모의례의 형식별 준비용품

사례	형식	신주	지방	사진	상	촛대	병풍	제기	축문	성경, 찬송가	십자가, 기도서, 성가	반야 심경	미사 준비물 영적예물	제물 대증공양
사례1	유교식		○		○	○	○	○	○					
사례2	유교식	○	○		○	○	○	○	○					
사례3	유교식		○	○	○		○	○						
사례4	유교식	○	○		○	○	○	○						
사례5	유교식	○	○		○	○	○	○						
사례6	유교식			○	○	○	○	○						
사례7	유교식		○	○	○	○	○	○	○					
사례8	유교식	○	○		○	○		○						
사례9	유교식	○	○		○	○	○	○	○					
사례10	유교식		○		○	○	○	○	○					
사례16	유교식		○		○	○	○	○						
사례22	유교식	○	○		○	○	○	○						
사례26	유교식		○		○	○	○	○						
사례27	유교식		○		○	○	○	○						
사례28	유교식	○	○		○	○	○	○	○					
사례29	유교식	○	○		○	○	○	○	○					
사례30	유교식	○	○		○	○	○	○						
사례32	유교식	○	○		○	○	○	○						
사례33	유교식	○	○	○	○	○	○	○						
사례34	유교식	○	○		○	○	○	○						

<표 IV-5> (계속)

사례	형식	신주	지방	사진	상	촛대	병풍	제기	축문	성경, 찬송가	십자가, 기도서, 성가	반야심경	미사 준비물, 영적예물	제물, 대증공양
사례37	유교식	○	○		○	○	○	○	○					
사례38	유교식		○		○	○	○	○	○					
사례39	유교식		○		○	○	○	○	○					
사례40	유교식	○	○		○	○	○	○	○					
사례11	기독교식									○				
사례12	기독교식									○				
사례13	기독교식									○				
사례14	기독교식									○				
사례15	기독교식									○				
사례17	기독교식									○				
사례18	기독교식									○				
사례19	기독교식									○				
사례20	기독교식									○				
사례21	유교식 + 천주교식				○	○					○			
사례23	유교식 + 천주교식	○	○		○	○	○	○	○		○			
사례24	유교식 + 천주교식			○	○	○	○	○			○			
사례35	유교식 + 불교식	○	○		○		○	○				○		
사례36	유교식 + 불교식	○	○		○	○	○	○	○			○		
사례25	천주교식												○	
사례31	불교식													○

## 7) 추모의례의 음식준비여부와 마련방법

<표 IV-6>을 보면 유교식, 유교식+천주교식, 유교식+불교식의 추모의례를 행하는 가정에서는 제사상음식과 가족들을 위한 음식이 모두 마련되었다. 반면 기독교식 추모의례를 행하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위한 음식만 마련되었고, 봉안당에서 추모의례를 행하는 경우에는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당에서 천주교식 추모의례를 행하는 경우는 연미사를 드린 후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사찰에서 불교식 추모의례로 천도재를 이행하는 경우는 재를 지낸 후 공양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추모의례의 음식 가운데 밥(37개 사례), 국(37개 사례), 나물(34개 사례), 전(34개 사례), 적(31개 사례), 탕(29개 사례), 김치(29개 사례), 식혜(28개 사례) 등은 집에서 만든 것으로 한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많았던 반면 과일(37개 사례), 떡(33개 사례), 간장(29개 사례), 술(29개 사례), 포(28개 사례)는 구입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면과 젓갈은 마련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33개 사례, 36개 사례였다.

추모의례의 음식비용 부담은 시댁형제들이 현금으로 상호 분담하는 경우 19개 사례, 전적으로 주관자의 가정에서 부담하는 경우 17개 사례, 시댁형제들이 음식을 나누어 마련하는 경우가 4개 사례였다. 이는 제사음식 비용부담 방법을 조사한 김계숙(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순위와 일치한다.

<표 IV-6> 추모의례의 형식별 음식준비여부와 마련방법

사례	형식	추모의례 음식준비	밥	국	탕	적	떡	면	포	식혜	김치	나물	전	젓갈	간장	과일	술	추모의례 음식비용
사례1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	○	○	주관자집 에서부담
사례2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3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4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주관자집 에서부담
사례5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주관자집 에서부담
사례6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	○	주관자집 에서부담
사례7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	○	주관자집 에서부담
사례8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9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10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16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22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26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27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28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음식으로 상호분담
사례29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30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32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33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	○	주관자집 에서부담
사례34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37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	주관자집 에서부담

<표 IV-6> (계속)

사례	형식	추모의례 음식준비	밥	국	탕	적	떡	면	포	식혜	김치	나물	전	젓갈	간장	과일	술	추모의례 음식비용
사례38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39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	○	음식으로 상호분담
사례40	유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주관자집 에서부담
사례11	기독교식	가족음식 만 준비	○	○		○	○			○	○	○	○				○	음식으로 상호분담
사례12	기독교식	가족음식 만 준비	○	○	○		○			○	○	○	○				○	음식으로 상호분담
사례13	기독교식	가족음식 만 준비	○	○			○				○		○		○	○		주관자집 에서부담
사례14	기독교식	가족음식 만 준비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15	기독교식	가족음식 만 준비	○	○		○				○							○	주관자집 에서부담
사례17	기독교식	가족음식 만 준비	○	○			○				○	○	○				○	주관자집 에서부담
사례18	기독교식	봉안당에서 추도 후 외식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19	기독교식	가족음식 만 준비	○	○			○				○	○	○			○	○	주관자집 에서부담
사례20	기독교식	가족음식 만 준비	○	○						○	○	○					○	주관자집 에서부담
사례21	유교식 + 천주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주관자집 에서부담
사례23	유교식 + 천주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24	유교식 + 천주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35	유교식 + 불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형제들이 상호분담
사례36	유교식 + 불교식	제사음식 가족음식	○	○	○	○	○	○	○	○	○	○	○				○	주관자집 에서부담
사례25	천주교식	성당에서 연미사 후 외식																주관자집 에서부담
사례31	불교식	사찰에서 천도재 후 공양간 식사																주관자집 에서부담
계			37	37	29	31	33	7	28	28	29	34	34	4	29	37	29	

#### 8) 추모의례준비를 위한 가족의 자세

추모의례를 위해 가족들이 생활면에서 노력하는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는 ‘추모의례를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10개 사례), ‘복장은 평상시 입는 것과는 구별해서 입는다’(3개 사례), ‘추모의례를 앞두고 목욕을 정결하게 한다’(2개 사례), ‘지나친 음주는 자제한다’(2개 사례)고 하였다.

가정적으로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다’(9개 사례), ‘음식을 준비할 때는 먼저 먹지 않는다’(7개 사례), ‘그릇은 평상시 것과는 구별해서 쓴다’(4개 사례), ‘음식은 고양이, 개, 벌레 등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한다’(2개 사례) 등의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추모의례의 준비 자세는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 나타난 제례수행을 위한 준비모습과 같이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물론 추모의례를 위한 공간, 음식, 그릇 등에 청결과 정성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7> 추모의례준비를 위한 가족의 자세

추모의례준비를 위한 가족의 자세	사 례 1	사 례 2	사 례 3	사 례 4	사 례 5	사 례 6	사 례 7	사 례 8	사 례 9	사 례 10	사 례 11	사 례 12	사 례 13	사 례 14	사 례 15	사 례 16	사 례 17	사 례 18	사 례 19	사 례 20
추모의례를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																	○			
추모의례의 음식을 준비할 때는 먼저 먹지 않는다		○	○							○										
추모의례의 음식은 고양이, 개 별레 등에 의해 더럽혀 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추모의례에 사용하는 그릇은 평상시 것과는 구별해서 쓴다								○	○							○				
추모의례에 입는 복장은 평상시 입는 것과는 구별해서 입는다	○											○								
추모의례를 위해 집안을 깨끗이 청소 한다				○	○					○			○	○					○	○
추모의례를 앞두고 목욕을 정결하게 한다						○									○					
추모의례를 앞두고 지나친 음주는 자제 한다							○													
기타(평상시처럼 생활한다)																	○			

<표 IV-7> (계속)

추모의례준비를 위한 가족의 자세	사례 21	사례 22	사례 23	사례 24	사례 25	사례 26	사례 27	사례 28	사례 29	사례 30	사례 31	사례 32	사례 33	사례 34	사례 35	사례 36	사례 37	사례 38	사례 39	사례 40	계	
추모의례를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	○		○	○	○			○			○		○							○	○	10
추모의례의 음식을 준비할 때는 먼저 먹지 않는다		○								○				○	○							7
추모의례의 음식은 고양이, 개 벌레 등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					2
추모의례에 사용하는 그릇은 평상시 것과 구분해서 쓴다																			○			4
추모의례에 입는 복장은 평상시 입는 것과 구분해서 입는다									○													3
추모의례를 위해 집안을 깨끗이 청소 한다						○						○										9
추모의례를 앞두고 목욕을 정결하게 한다																						2
추모의례를 앞두고 지나친 음주는 자제 한다																		○				2
기타(평상시처럼 생활한다)																						1

### 9) 추모의례의 형식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및 조정방안

추모의례의 형식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과 조정방안에 대한 중년기 주부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주부의 종교가 기독교인 사례12의 경우 결혼 당시 시댁의 종교가 불교여서 추모의례 시 갈등이 있었으나 외며느리인 자신이 인내하고 좋은 본을 보임으로써 다른 가족들도 서서히 개종이 이루어져 현재는 한 마음으로 기독교식 추모의례를 행하게 되었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사례16은 남편과 주부는 종교가 기독교인 반면 유교인 시댁의 아주버님은 추모의례를 유교식으로 이행하고 있어 주부에게 부담스러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추모의례에 참석 시 시댁의 가족들은 신위에 절을 행하지만 주부와 남편은 조용히 기도로 대신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추모의례를 장자와 장손이 돌아가면서 주관하고 있는 사례23의 경우 가족들이 합의를 하여 먼저 유교식의 추모의례를 행한 다음 천주교식으로 위령기도와 가족기도를 드린다고 하였다. 사례24도 유교식과 천주교식이 공존하는 형식으로 추모의례를 지내는 상황이다. 시댁의 형제들이 종교가 달라 갈등이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은 절은 행하지 않고 기도로 대신한다고 하였다. 가정에서 유교식 추모의례를 행하는 사례32는 시동생이 기독교인이라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으나 서로 합의를 해서 유교식의 추모의례를 행하는 가운데 시동생은 묵념을 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응답을 종합해보면 추모의례의 형식으로 인한 갈등은 주관자의 종교와 참석자의 종교가 다른 점에서 기인을 하고 있다. 유교식, 유교식+천주교식의 추모의례를 행하는 가정의 경우 종교가 기독교인 가족이 추

모의례에 참석을 하게 되면 기도나 묵념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 10) 추모의례로 인한 부담감

추모의례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을 중년기 주부들에게 질문한 결과 면접대상이 만며느리인 경우 시간, 비용, 가사노동 등으로 인한 부담에 관한 언급이 제시되었다.

##### **먼저 시간적인 면에서의 부담감을 이야기한 응답으로**

직업을 갖고 있어 추모의례를 위한 준비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만며느리라 어쩔 수 없이 참고한다(사례3).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부족, 제수 마련에 많은 부담이 있지만 감수하고 정성껏 마련한다(사례9).

##### **비용의 면에서 갖는 부담감으로는**

비용을 우리 집에서 다 내니까 솔직히 부담된다. 상부상조하면 좋겠다(사례7).

##### **가사노동으로 인한 부담감에 있어서는**

시장보기가 어렵다. 시장 볼 때 같이 하거나 시장을 봐주었으면 좋겠다(사례4).

각자 자기 일로 바빠 맘머느리로서 혼자 준비 하느라 힘들다. 제수 마련 시 가사노동이 부담스러워 도우미를 써야겠다(사례33).

맘머느리가 갖는 추모의례에 대한 부담감은 두경자(2001)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다. 두경자는 제사를 위해 맘머느리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여 친족 모임을 주관해야 하는 기본 골격이 유지됨으로써 현대인의 정서와 생활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추모의례에 대한 부담은 일부 둘째맘머느리 이하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둘째맘머느리로서 제사 비용을 조금만 낸 경우 민망하고 마음도 불편해서 그 다음 기제부터는 다시 많이 냈다(사례2), 음식 준비 돕기가 힘들고 부담된다(사례5,6), 추모시간이 너무 늦다(사례37) 등의 언급이 있었다.

이처럼 추모의례의 준비에 대해 부담감을 지니는 중년기 주부들은 앞으로는 음식준비를 간소화(사례2,5,6,8,23,27,30,33,36,38,39)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가족들이 의논을 통해 추모의례의 음식 비용을 상호 분담하고 더불어 가사 분담(사례7,9)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상 중년기 주부 가정의 추모의례 실태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면접대상 중년기 주부 가정의 추모의례 형식은 유교식이 60.0%, 기독교식·천주교식·불교식 등 종교별 추모의례 절차에 의거하는 형식이 27.5%, 유교식+천주교식 혹은 유교식+불교식의 결합이 12.5%로 대체적으로 제례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추모의례의 주관은 장남이나 독자가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일부 사례를 보면 시댁형제들이 돌아가며 주관을 하기도 하고, 둘째 이하여도 신앙적인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추모의례의 주관자가 되거나 주부가 남편보다 신앙심이 깊은 경우에는 주관자로서의 역할이 더 크게 부각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추모의례의 대상 범위는 1대조까지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대조, 2대조, 4대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추모의례의 참석자로는 남편과 주부 외에 자녀 그리고 남편의 형제자매와 배우자가 대표적이다.

넷째, 추모의례의 장소는 주관자 집의 거실이나 안방이 주가 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봉안당, 성당, 사찰 등이 언급되어 가정이 아닌 추모시설이나 종교기관에서의 이행 상황을 보여준다. 추모의례를 행하는 일시는 돌아가신 전날 저녁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나 돌아가신 날 저녁, 돌아가신 날을 앞둔 토요일에 추모의례를 행하는 가정도 있다. 추모의례 참석 시 복장은 남성은 대체로 양복이나 정장을, 여성은 평상복이나 정장을 착용하고 있다.

다섯째, 추모의례를 위한 준비용품으로 유교식 추모의례를 행하는 가정에서는 병풍, 신주나 지방, 상, 촛대, 제기 등을 마련하고, 유교식+천주교식 혹은 유교식+불교식에서는 유교식과 같은 준비 외에 종교적인 물품이 추가적으로 사용되었다. 기독교식, 천주교식, 불교식 추모의례에서는 종교적인 절차에 사용되는 준비용품을 중심으로 한다. 음식마련에 있어 유교식, 유교식+천주교식, 유교식+불교식에서는 제사상음식과 가족들을 위한 음식이 모두 마련되는 반면 기독교식 추모의례를 행하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위한 음식만 마련되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추모시설이나 종교 기관에서 추모의례를 행하는 경우에는 내부에 마련된 식당을 이용하거나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모의례의 음식비용 부담은 시댁형제들이 현금이나 음식으로 상호 분담을 하는 경우와 전적으로 주관자의 가정에서 부담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여섯째, 오늘날 추모의례의 형식으로 인한 갈등은 주관자의 종교와 참석자의 종교가 다른 점에서 기인을 한다. 또한 주부들에게 있어 추모의례로 인한 부담감이 시간, 비용, 가사노동 등의 면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 4. 향후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

면접대상 중년기 주부들이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는 자녀세대의 추모의례 이행에 대한 기대 여부, 앞으로 자녀세대가 영위하기를 바라는 추모의례의 모습, 자녀세대를 위한 추모의례 교육의 주체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자녀세대의 추모의례 이행에 대한 기대

<표 IV-8>를 보면 자녀세대가 향후 추모의례를 행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결과 주부의 종교가 천주교, 무교, 불교인 경우에는 향후 자녀가 추모의례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각각 10개 사례, 10개 사례, 9

<표 IV-8> 자녀세대의 추모의례이행에 대한 기대

사례	주부 종교	추모의례 이행	이 유
사례1	무 교	원한다	조상을 생각하기 위해
사례2	무 교	원한다	자식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례3	무 교	원한다	형제의 유대관계, 부모를 기억해 주었으면 해서
사례4	무 교	원한다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사례5	무 교	원한다	조상을 기리고, 가족 공동체의식을 위해서
사례6	무 교	원한다	가족을 생각하고 형제자매간의 우애를 위해
사례7	무 교	원한다	식구들이 모여 화목하게 옛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례8	무 교	원한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례9	무 교	원한다	조상의 존재를 잊지 않기 위해
사례10	무 교	원한다	돌아가신 부모를 기억하기 위해
사례11	기독교	원한다	조상의 고마움을 생각하고,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므로
사례12	기독교	원한다	돌아가신 부모를 기억하기 위해
사례13	기독교	<b>원하지 않는다</b>	살아 있을 때 효를 행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14	기독교	<b>원하지 않는다</b>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이므로
사례15	기독교	원한다	친목을 위해서
사례16	기독교	원한다	온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기 위해
사례17	기독교	원한다	각박한 세태와 바쁜 생활 속에서도 모여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례18	기독교	원한다	가족이 모이기 힘들니까 결속력을 위해서
사례19	기독교	<b>원하지 않는다</b>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20	기독교	원한다	부모를 기억하고, 형제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되므로

<표 IV-8> (계속)

사례	주부 종교	추모의례 이행	이유
사례21	천주교	원한다	고인을 위해서, 산사람의 효를 위해서 가족의 화합과 화목을 위해서, 일심단결을 위해서
사례22	천주교	원한다	자녀들이 모여서 우애도 생기고 서로 의지할 수 있으므로
사례23	천주교	원한다	고인을 위한 기도와 연미사를 위해
사례24	천주교	원한다	조상을 생각하며 가족들이 모이는 계기가 되는 미풍양속이므로
사례25	천주교	원한다	가족의 공동체의식을 위해서
사례26	천주교	원한다	한국인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전통을 유지했으면 해서
사례27	천주교	원한다	조상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형제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
사례28	천주교	원한다	음식을 마련해서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서
사례29	천주교	원한다	부모를 기억하길 바라면서
사례30	천주교	원한다	집안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사례31	불 교	<b>원하지 않는다</b>	자녀가 바쁜 생활 가운데 추모의례로 인해 힘들지 않았으면 해서
사례32	불 교	원한다	조상 때부터 해오던 거고 형제 간 우애를 위해서
사례33	불 교	원한다	종손이므로 다소 줄여서라도 전통을 이어가야 하므로
사례34	불 교	원한다	가족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례35	불 교	원한다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
사례36	불 교	원한다	조상의 뿌리를 생각하기 위해
사례37	불 교	원한다	조상을 생각하며 은혜에 보답하고, 형제간의 화목을 위해서
사례38	불 교	원한다	고인을 생각하고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사례39	불 교	원한다	삶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사례40	불 교	원한다	나의 뿌리이며 나를 가장 아껴준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개 사례에서 나타난 반면 기독교인 주부의 경우에는 7개 사례에서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세대의 추모의례 이행에 대한 기대를 갖는 응답자들은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기 위해, 우애를 위해, 가족의 공동체의식을 위해서, 전통을 전승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자녀세대의 추모의례 이행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자녀가 자신의 바쁜 생활 가운데 추모의례로 인해 힘들지 않았으면 해서(사례31),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사례13,19),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제사이므로(사례14)라는 답변을 했다.

## 2) 자녀세대에게 희망하는 추모의례의 모습

자녀세대에게 희망하는 추모의례의 모습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의 <표 IV-9>와 같다.

첫째, 추모의례의 형식으로는 유교식(16개 사례), 기독교식(7개 사례), 천주교식(4개 사례), 유교식+천주교식(3개 사례), 유교식+불교식(1개 사례), 불교식(1개 사례) 등의 답변이 제시되었으며, 본인의 자유의사(4개 사례)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주부의 종교별로 살펴보면 무교인 주부들은 자녀가 유교식 추모의례를 이행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8개 사례, 자녀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경우가 2개 사례로 나타났다. 기독교인 주부들은 7개 사례 모두 자녀가 기독교식 추모의례를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천주교인 주부들은 자녀가 천주교식 추모의례를 행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4개 사례, 유교식+천주교식 추모의례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3사례, 유교식 추모의례 이행을 원하는 경우 2사례, 자녀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경우가 1사례였다. 종교가 불교인 주부들은 자녀

가 유교식 추모의례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6사례, 불교식 추모의례 이행을 원하는 경우가 1사례, 유교식+불교식 추모의례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1사례, 자녀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경우 1사례로 나타났다.

둘째, 추모의례의 대상범위에 있어서는 2대조까지(18개 사례)와 1대조까지(13개 사례)에 응답이 많았고 다음으로 3대조까지(5개 사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자녀세대가 1년에 여러 번 제사 지내는 것은 힘들니까 제일 윗분을 기준으로 합쳐서(사례32) 혹은 부모님 두 분을 같은 날 함께 모시는(사례33)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셋째, 추모의례의 주관자는 만이(예:장남 혹은 장녀)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믿음이 좋은 자녀(사례11,12) 혹은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주관(사례15,25)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참석자는 추모의례의 대상이 1대조까지인 경우는 자녀, 2대조 이상인 경우는 자녀와 사촌형제자매가 참석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참석자들의 복장으로는 양복이나 정장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넷째, 추모의례의 장소는 주관자의 집으로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성당이나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서 추모의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례(사례23,25,28,29,34)도 있다. 이중 사례25와 사례34는 각각 성당과 사찰에서 추모의례가 끝난 후 외부 식당과 공양간에서 음식을 먹어도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 밖에 기일 혹은 기일이 가까운 공휴일에 외부 추모시설(예: 봉안한 곳)로 찾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례(사례3,18)가 있다. 사례3은 “부모님이 봉안된 곳을 찾아가 국화 한 송이라도 놓아드리고 오면 된다”고 언급하고, 이는 “두 형제가 부모라는 끈으로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나타냈다. 사례18은 “돌아가

신 전날 오전에 봉안당에서 기도를 드린 후 밖에서 외식을 하면 좋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추모의례의 일시는 돌아가신 날 저녁이 19개 사례, 돌아가신 전날 저녁이 13개 사례로 응답되었고, 그 외에도 돌아가신 날을 앞둔 주말 저녁이나 공휴일 혹은 참석자가 편한 시간이 3개 사례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에 있어 자녀세대가 다음날 직장 출근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사례4).

다섯째, 추모의례를 위한 준비용품은 유교식 추모의례의 경우 제례용품이 주가 되었으며, 유교식+천주교식, 유교식+불교식 추모의례의 경우에는 제례용품 외에 종교적 물품(예: 십자가, 기도서, 성가, 반야심경)을, 기도교식 추모의례에서는 성경과 찬송가, 천주교식 추모의례에서는 영적예물, 불교식 추모의례에서는 대중공양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다. 음식준비는 집에서 성의 있게 만들되 간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의 응답으로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든다(사례 12,16,17,20,23,28,29) 고인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든다(사례22), 집에서 만들기 어려운 것은 구입한다(사례2)는 응답이 있었다. 음식준비의 비용은 형제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주관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표 IV-9> 자녀세대에게 희망하는 추모의례의 모습

사례	주부 종교	형식	대상 범위	주관자	참석자	일시	장소	복장	준비 용품	음식 준비	음식준비 비용
사례 1	무교	유교식	1대조	만이	자녀	돌아가신 전날 11시	주관자 집	양복	제례용품	집에서 만들	주관자 부담
사례 2	무교	유교식	1대조	만이	자녀	기일이 가까운 주말 저녁 8시	주관자 집	양복	제례용품	가능하면 집에서 만들고, 불가능 하면 구입	형제들 분담
사례 3	무교	자유 의사	1대조	자녀	자녀	기일이 가까운 공휴일	불안한 곳	평상복	꽃	.	.
사례 4	무교	유교식	1대조	만이	자녀	돌아가신 전날 저녁	주관자 집	정장	제례용품	간소하게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5	무교	자유 의사	2대조	만이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날 저녁	주관자 집	정장	제례용품	최소 간소하게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6	무교	유교식	2대조	장손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전날 저녁	주관자 집	정장	제례용품	가족들이 분담해서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7	무교	유교식	2대조	만이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날 저녁	주관자 집	양복	제례용품	간소하게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8	무교	유교식	2대조	장손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전날 9시	주관자 집	양복	제례용품	간소하게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9	무교	유교식	1대조	만이	자녀	돌아가신 날 10시	주관자 집	양복	제례용품	간소하게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10	무교	유교식	3대조	장손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전날 저녁	주관자 집	정장	제례용품	집에서 만들	형제들 분담

<표 IV-9> (계속)

사례	주부 종교	형식	대상 범위	주관자	참석자	일시	장소	복장	준비 용품	음식 준비	음식준비 비용
사례 11	기독교	기독교식	2대조	민음이 좋은 자녀	자녀	추모일 전 모이기 편한 시간	주관자 집	단정한 복장	고인사진, 성경, 찬송가	형제들이 협력해서 준비	형제들 분담
사례 12	기독교	기독교식	2대조	민음이 좋은 자녀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날 저녁	주관자 집	정장	성경, 찬송가, 꽃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13	기독교	.	.	.	.	.	.	.	.	.	.
사례 14	기독교	.	.	.	.	.	.	.	.	.	.
사례 15	기독교	기독교식	1대조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자녀	돌아가신 날 저녁	주관자 집	평상복	성경, 찬송가	낭비 없이 간단하게 만들	주관자 부담
사례 16	기독교	기독교식	1대조	자녀	자녀	돌아가신 날 저녁	주관자 집	정장	성경, 찬송가	가족들이 먹는 것만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17	기독교	기독교식	1대조	만이	자녀	돌아가신 날 저녁	주관자 집	정장, 간편복	성경, 찬송가	즐길 음식을 만들	가정의 형편 따라
사례 18	기독교	기독교식	1대조	만이	자녀	돌아가신 전날 오전	봉안당	단정한 복장	꽃	밖에서 외식	형제들 분담
사례 19	기독교	.	.	.	.	.	.	.	.	.	.
사례 20	기독교	기독교식	1대조	만이	자녀	돌아가신 날 저녁	주관자 집	간편복	성경, 찬송가	가족을 위한 음식 만들	주관자 부담

<표 IV-9> (계속)

사례	주부 종교	형식	대상 범위	주관자	참석자	일시	장소	복장	준비 용품	음식 준비	음식준비 비용
사례 21	천주교	유교식 + 천주교식	3대조	만이	자녀	돌아가신 날 저녁	주관 자집	단정한 복장	제례용품, 십자가, 기도서, 성가	집에서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22	천주교	자유 의사	3대조	만이	조상을 기억하는 자손이 자발적 참석	돌아가신 날 저녁	주관 자집	양복	주관자의 종교의식 용품	고인이 좋아 하셨던 음식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23	천주교	천주교식	2대조	만이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날 12시	성당	양복	영적예물	가족들 먹을 것만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24	천주교	유교식 + 천주교식	2대조	만이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날 저녁	주관 자집	단정한 복장	제례용품, 십자가, 기도서, 성가	집에서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25	천주교	천주교식	2대조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날 저녁	성당	단정한 복장	영적예물	밖에서 외식	주관자 부담
사례 26	천주교	유교식	2대조	만이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날 8시	주관 자집	양복 정장	제례용품	집에서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27	천주교	유교식	2대조	만이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전날 12시	주관 자집	정장	제례용품	집에서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28	천주교	천주교식	2대조	만이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전날 9시	성당	정장 편한 복장	영적예물	가족이 좋아하는 하는 음식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29	천주교	천주교식	1대조	만이	자녀	돌아가신 전날 10시	성당	정장	영적예물	가족이 좋아하는 하는 음식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30	천주교	유교식 + 천주교식	2대조	만이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날 저녁	주관 자집	정장	제례용품, 십자가, 기도서, 성가	집에서 만들	형제들 분담

<표 IV-9> (계속)

사례	주부 종교	형식	대상 범위	주관자	참석자	일시	장소	복장	준비 용품	음식 준비	음식준비 비용
사례 31	불교	.	.	.	.	.	.	.	.	.	.
사례 32	불교	유교식	3대조	만이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전날 9시	주관자 집	정장	제례용품	간소하게 집에서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33	불교	유교식	2대조	만이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날 8시	주관자 집	정장	제례용품	집에서 만들	주관자 부담
사례 34	불교	불교식	1대조	만이	자녀	돌아가신 날 편한 시간	사찰	평상복	대중공양	공양간에서 식사	주관자 부담
사례 35	불교	자유 의사	1대조	만이	자녀	돌아가신 날 저녁	주관자 집	단정한 복장	주관자의 종교의식 용품	집에서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36	불교	유교식 + 불교식	2대조	만이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날 8시	주관자 집	단정한 차림	제례용품, 반야심경	간소하게 집에서 만들	주관자 부담
사례 37	불교	유교식	2대조	만이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전날 12시	주관자 집	정장	제례용품	집에서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38	불교	유교식	2대조	만이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전날 9시	주관자 집	정장	제례용품	간소하게 집에서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39	불교	유교식	2대조	만이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전날 저녁	주관자 집	정장	제례용품	간소하게 집에서 만들	형제들 분담
사례 40	불교	유교식	3대조	만이	자녀 사촌형제	돌아가신 전날 12시	주관자 집	양복	제례용품	집에서 만들	주관자 부담

### 3) 자녀세대를 위한 추모의례 교육의 주체 및 내용

중년기 주부들에게 자녀세대를 위한 추모의례 교육의 주체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IV-10) 36개 사례에서 응답이 나타났다. 이중 20개 사례는 자녀세대를 위한 추모의례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가장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대학을 통해서가 8개 사례, 종교기관 5개 사례, 사회문화센터·인터넷이나 TV·책을 통해서는 각각 1개 사례씩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복미 등(2004)의 연구에서 제사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배우는 대상으로 결혼 전에는 부모님(43.3%)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녀세대에게 필요한 추모의례 교육의 내용(복수응답)을 질문한 결과(표 IV-11)를 살펴보면 추모의례의 의미(17개 사례), 주관자의 마음가짐(12개 사례), 추모의례를 행하는 의의(11개 사례), 음식준비방법(10개 사례), 추모의례의 절차(10개 사례)에 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추모의례 주관자의 몸가짐(7개 사례), 추모의례의 참석범위(6개 사례), 날짜와 시간(6개 사례), 장소(6개 사례), 복장(6개 사례), 추모의례의 종교적 형식(6개 사례), 추모의례의 대상범위(5개 사례), 추모의례의 준비용품(4개 사례), 음식준비 비용(4개 사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자녀세대를 위한 추모의례 교육의 주체

구분	사례 수
가정	20
대학	8
종교기관	5
사회문화센터	1
인터넷이나 TV	1
책	1
계	36

<표 IV-11> 자녀세대를 위한 추모의례 교육의 내용

구분	사례 수
추모의례의 의미	17
추모의례를 행하는 의의	11
추모의례의 대상 범위	5
추모의례의 참석 범위	6
추모의례 주관자의 마음가짐	12
추모의례 주관자의 몸가짐	7
추모의례의 날짜와 시간	6
추모의례의 장소	6
추모의례의 복장	6
추모의례의 소요물품	4
추모의례의 음식준비방법	10
추모의례의 음식준비비용	4
추모의례의 종교적 형식	6
추모의례의 절차	10

이상 향후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중년기 주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주부들은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기 위해, 형제 간 우애를 위해, 가족의 공동체의식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을 전승하기 위해 자녀세대의 추모의례 이행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모의례의 모습은 가정 내 지속되어온 의례의 형식이 그대로 고수되는 경우도 있으나 다음 세대에는 주관자가 바뀔에 따라 자녀의 의사에 따라 지금과는 다른 형식으로 변화되는 혹은 종교별 추모의례의 접목 형식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주관자의 가정이 아닌 종교기관(예: 성당, 사찰)이나 추모시설(예: 봉안당, 산소)에서 추모의례를 행하는 형식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정에서와는 다른 종교적 형식에 의거한 의례나 추모시설의 상황에 적합한 의례 형식이 추구될 것으로 예견된다. 추모의례의 날짜와 시간은 돌아가신 날 저녁 혹은 돌아가신 전날 저녁 외에도 돌아가신 날을 앞둔 주말이나 공휴일에 참석자들이 모이기 편한 시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추모의례의 대상범위는 1대조 혹은 2대조까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참석자도 추모의례의 대상범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추모의례를 위한 음식준비는 성의 있게 만들되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간소화의 의미 속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과 가사노동 면에서 형제들이 분담을 하거나 비용을 상호 분담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나 고인을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추모의례의 주관자를 만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음을 볼 때 가정의 부

모는 물론 대학과 종교기관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추모의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자녀세대를 위한 추모의례 교육 내용의 응답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추모의례의 의미, 주관자의 마음가짐, 추모의례를 행하는 의의, 음식준비방법, 추모의례의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때 대학과 종교기관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가정과 더불어 추모의례 교육의 주체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추모의례의 모델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다양한 양상을 띠면서 그 종교마다 상이한 의식 절차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의례를 하나로 규합하여 시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단지 각 가정에서 가풍이나 종교에 따라 예의에 맞게 절제된 의식을 행하기를 요구할 뿐이다. 특히 추모의례의 경우 종교에 따른 그 특색이 상이한 관계로 현대사회에서의 규범화된 제례의의를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제례의 출발이 보본반시(報本反始)에 있으며 본래의 의의가 효(孝)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추모의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가례(家家禮)에 따른 의식(儀式)은 우리가 수용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김인옥, 1997).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중년기 주부들의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가정의 추모의례 실태 그리고 향후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 등을

토대로 추모의례가 이행되는 장소에 따른 추모의례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가정에서의 모델, 종교기관에서의 모델, 추모시설에서의 모델을 제안하였다(표 IV-12,13,14 참조).

#### 1) 가정에서의 추모모델

주관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추모모델은 형식별로 유교식의 기제, 기독교식의 추도예배, 유교식 기제와 천주교식 요소의 결합, 유교식 기제와 불교식 요소의 결합으로 이행한다.

추모대상의 범위는 1대 혹은 2대로 한하고 주관은 만이가 하되 기독교식에서는 믿음이 좋은 자녀가 진행할 수도 있다. 추모의례 참석자는 부부 외에 자녀, 주관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로 한다. 날짜와 시간은 기일이나 기일을 앞두고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날의 저녁시간으로 한다. 복장은 정장이나 양복 등 단정한 것을 입는다.

준비용품에 있어 유교식은 제례용품, 기독교식은 성경·찬송가를 준비한다. 유교식 기제와 천주교식 요소의 결합은 제례용품 외에 십자가·기도서·성가를, 유교식 기제와 불교식 요소의 결합은 제례용품과 반야심경을 준비한다. 제사음식은 집에서 직접 만들거나 일부는 구입 혹은 형제들이 음식을 분담해서 마련한다. 기독교식은 추도예배 후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 음식마련 비용은 형제들이 분담하도록 한다.

<표 IV-12> 가정에서의 추모모델

장소	주관자의 가정			
형식	유교식의 기제	기독교식의 추도예배	유교식+ 천주교식 요소	유교식+ 불교식 요소
대상 범위	1대 혹은 2대			
주관자	만이 혹은 믿음이 좋은 자녀			
참석자	부부,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			
날짜/시간	기일 혹은 기일을 앞두고 가족이 모이기 가능한 날의 저녁시간			
복장	정장 혹은 양복			
준비용품	제례용품	성경, 찬송가	제례용품, 십자가, 기도서, 성가	제례용품, 반야심경
음식준비	제사음식과 가족을 위한 음식을 직접 만들거나 구입 혹은 분담해서 마련			
음식비용	형제들이 분담			

## 2) 종교기관에서의 추모모델

면접조사 결과 가정의 종교가 천주교, 불교인 경우에는 종교기관에서의 추모의례에 대한 향후의 바람을 나타내고 있어 성당의 경우 성전에서의 연미사로, 사찰의 경우 법당의 천도재로 진행하는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추모의례의 대상범위는 1대 혹은 2대로 하고만이 혹은 믿음이 좋은 자녀가 제반준비를 주관한다. 추모의례의 집례는 신부님과 스님께 의뢰한다.

참석자는 부부 외에 자녀, 주관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로 한다. 날짜와 시간은 기일 혹은 기일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이기 가능한 날짜와 시간으로 한다. 복장은 단정한 정장이나 양복을 착용한다. 준비용품으로는 성당의 경우 미사 준비물과 영적예물, 사찰의 경우 제물과 대중공양을 마련한다. 참석자를 위한 음식은 성당에서 연미사를 드린 후 근처 식당을 예약해서 식사를 한다. 사찰의 경우는 재를 지낸 후 공양간에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이때 식사비용은 형제들이 상호 분담하도록 한다.

<표 IV-13> 종교기관에서의 추모모델

장소	성당의 성전	사찰의 법당
형식	연미사	천도제
대상 범위	1대 혹은 2대	
주관자	만이 혹은 민음이 좋은 자녀(집례는 종교기관)	
참석자	부부,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	
날짜/시간	기일 혹은 기일을 앞두고 가족이 모이기 가능한 날짜와 시간	
복장	정장 혹은 양복	
준비용품	미사 준비물, 영적예물	제물, 대중공양
음식준비	연미사 후 근처 식당에서 식사	천도제 후 공양간에서 식사
음식비용	형제들이 분담	

### 3) 추모시설에서의 추모모델

오늘날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바뀌면서 추모시설은 실내 봉안당과 야외의 산소 혹은 수목공원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추모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실내와 실외의 추모시설 모두 추모의례의 형식은 묵념이나 기도 혹은 배례를 한다. 추모대상범위는 1대 혹은 2대로 하고 주관은 맏이가 한다. 참석자는 남편과 주부 외에 자녀, 주관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로 한다.

날짜와 시간은 기일 혹은 기일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가능한 낮 시간으로 한다. 복장은 단정한 평상복이나 정장으로 한다. 준비용품으로는 꽃을 마련한다.

음식준비는 고인이 평소 좋아하셨던 음식이나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형제들이 분담해서 마련한다. 면접대상 가운데 몇몇 중년기 주부들은 추모의례가 화목한 만남의 시간이 되어 가족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사례 1,6,9,11,17,18,40). 이를 참조하여 추모의례시설에서는 의례를 마친 후 식당이나 야외에서 외식을 하거나 가족들이 준비해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표 IV-14> 추모시설에서의 추모모델

장소	봉안당, 산소, 수목공원
형식	성묘 후 묵념이나 기도, 배례
대상 범위	1대 혹은 2대
주관자	만이
참석자	부부,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
날짜/시간	기일 혹은 기일을 앞두고 가족이 모이기 가능한 날의 낮 시간
복장	정장 혹은 단정한 평상복
준비용품	꽃
음식준비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과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 마련
음식비용	형제들이 분담

##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중년기 주부의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과 가정의 추모의례의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모의례의 변화를 예견하기 위해 향후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를 파악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따른 추모의례문화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재정립을 토대로 현 사회에 적합한 추모의례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40~50대 중년기 주부 40명을 무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각 종교별로 10명씩을 선정하여 2009년 8월 1일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기초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공식적인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 이상이었고, 한 사례 당 평균 2회 정도의 면담기회를 가졌다. 면담의 모든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고 중요한 상황은 따로 메모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후 면담 내용을 모두 타이핑하여 자료화하였으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전화를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면접조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향되어야 할 추모의례의 방향적 특징을 결론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모의례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을 종합해보면 많은 이들이 추모의례를 조상을 향한 정성의 표현으로, 조상을 기리는 정(情)의 문화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모의례의 기능에 있어서는 그를 통해 가족들이 화목과 협동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점, 조상의 교훈과 유지를 기억하고 열심히 생활하게 되는 점, 효의 근본을 일깨

우는 자녀교육의 계기가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추모의례문화는 중년기 주부들의 응답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형식이나 절차는 점차 축소되면서 보다 간소화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바쁘게 변화되는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조상의 교훈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정성이 담긴 정(情)의 문화로서의 추모의례의 본질적 의의를 다시금 상기하면서 가족의 공동체적 화합과 효 교육의 장으로써 추모의례의 긍정적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 중년기 주부 가정의 추모의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면접대상 중년기 주부 가정의 추모의례의 형식은 유교식이 60.0%, 기독교식·천주교식·불교식 등 종교별 추모의례 절차에 의거하는 형식이 27.5%, 유교식+천주교식 혹은 유교식+불교식의 결합이 12.5%로 대체적으로 제례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모의례의 주관자 역시 장남이나 독자가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일부 사례를 보면 시댁형제들이 돌아가며 주관할 하기도 하고, 차남 이하여도 신앙적인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추모의례의 주관자가 되거나 주부가 남편보다 신앙심이 깊은 경우에는 주관자로서의 역할이 더 크게 부각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추모의례의 대상 범위는 1대조까지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대조, 2대조, 4대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모의례의 참석자는 부부 외에 자녀 그리고 남편의 형제자매와 배우자가 대표적이었다. 추모의례의 장소는 주관자 집의 거실이나 안방이 주가 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봉안당, 성당, 사찰 등이 언급되어 가정이 아닌 추모시설이나 종교기관에서의 이행 상황을 보여주었다. 추모의례를 행하는 일시는 돌아가신 전날 저녁이 가장 많은 응

답을 보이나 돌아가신 날 저녁, 돌아가신 날을 앞둔 토요일에 추모의례를 행하는 가정도 있었다. 추모의례를 위한 준비용품으로 유교식 추모의례를 행하는 가정에서는 병풍, 신주나 지방, 상, 촛대, 제기 등을 마련하고, 유교식+천주교식 혹은 유교식+불교식에서는 유교식과 같은 준비 외에 종교적인 물품이 추가적으로 사용되었다. 기독교식 추모의례와 성당이나 사찰 등의 추모의례에서는 종교적인 절차에 사용되는 준비를 중심으로 하였다. 음식마련에 있어 유교식, 유교식+천주교식, 유교식+불교식에서는 제수음식과 가족들을 위한 음식이 모두 마련되는 반면 기독교식 추모의례를 행하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위한 음식만 마련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추모시설이나 종교기관에서 추모의례를 행하는 경우에는 내부에 마련된 식당을 이용하거나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추모의례의 형식으로 인한 갈등은 주관자의 종교와 참석자의 종교가 다른 점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가족들 간 협의와 수용적 태도로 개별 가정의 상황에 적합한 추모의례의 모델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추모의례로 인한 부담감이 시간, 비용, 가사노동 등의 면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이 요청된다.

셋째, 중년기 주부들은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기 위해, 형제 간 우애를 위해, 가족의 공동체의식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을 전승하기 위해 향후 자녀세대의 추모의례 이행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단, 가정 내 지속되어온 추모의례의 형식이 그대로 고수되는 경우도 있으나 다음 세대에는 주관자가 바뀔에 따라 자녀의 의사에 따라 지금과는 다른 형식으로 변화되는 혹은 종교별 추모의례의 접목 형식이 생겨날 수도 있다. 또한 주관자의 가정이 아닌 종교기관(예: 성당, 사찰)이

나 추모시설(예: 봉안당, 산소)에서 추모의례를 행하는 형식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정에서와는 다른 종교적 형식에 의거한 의례나 추모시설의 상황에 적합한 의례 형식이 추구될 것으로 예견된다. 추모의례의 날짜와 시간은 돌아가신 날 저녁 혹은 돌아가신 전날 저녁 외에도 돌아가신 날을 앞둔 주말저녁이나 공휴일에 참석자들이 모이기 편한 시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추모의례의 대상범위는 1대조 혹은 2대조까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참석자도 추모의례의 대상범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추모의례를 위한 음식준비는 성의 있게 만들되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간소화의 의미 속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과 가사노동 면에서 형제들이 분담을 하거나 비용을 상호 분담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나 고인을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추모의례의 주관자를 만이(예: 장남 혹은 장녀)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음을 볼 때 중년기 가정의 부모는 물론 대학과 종교기관 등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추모의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응답에서 나타난 추모의례의 의미, 주관자의 마음가짐, 추모의례를 행하는 의의, 음식준비방법, 추모의례의 절차 등에 관해서 교육이 필요하겠다.

넷째, 중년기 주부들의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가정의 추모의례 실태 그리고 향후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 등의 면접조사결과를 토대로 추모의례가 이행되는 장소에 따른 추모의례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가정에서의 추모모델은 형식별로 유교식의 기제, 기독교식의 추도예배, 유교식 기제와 천주교식 요소의 결합, 유교식 기제와 불교식 요소의 결합

등의 하나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추모의례의 대상은 1대 혹은 2대로 한하고 주관은 맏이가 하되 기독교식에서는 믿음이 좋은 자녀가 진행할 수도 있다. 추모의례 참석자는 부부 외에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로 한다. 날짜와 시간은 기일 혹은 기일 전 모일 수 있는 날의 저녁시간으로 한다. 장소는 주관자의 집으로 한다. 복장은 정장이나 양복 등 단정한 것으로 입는다. 준비용품에 있어 유교식은 제례용품, 기독교식은 성경·찬송가, 유교식+천주교식은 제례용품 외에 십자가·기도서·성가, 유교식+불교식은 제례용품과 반야심경을 마련한다. 음식준비는 집에서 만들거나 필요시 일부 구입하며,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상호 분담해서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비용은 형제들이 분담하도록 한다. 종교기관에서의 추모의례모델은 가정의 종교가 천주교, 불교인 경우 성당에서의 연미사와 사찰에서의 천도재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모대상의 범위는 1대 혹은 2대로 하고 맏이 혹은 믿음이 좋은 자녀가 제반 준비를 주관한다. 추모의례의 집례는 각각 신부님과 스님께 의뢰한다. 참석자는 부부 외에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로 한다. 날짜와 시간은 기일 혹은 가족들이 모이기 가능한 때로 한다. 복장은 단정한 정장이나 양복을 착용한다. 준비용품으로는 성당의 경우 미사 준비물과 영적예물, 사찰의 경우 제물과 대중공양을 마련한다. 참석자를 위한 음식은 성당에서 연미사를 드린 후 근처 식당을 예약해서 식사를 한다. 사찰의 경우는 재를 지낸 후 공양간에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이때 식사비용은 형제들이 분담을 하도록 한다. 추모시설에서의 추모의례모델은 오늘날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바뀌면서 실내 봉안당과 야외의 산소 혹은 수목공원 등에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추모의례의 형식은 묵념이나 기도 혹은 배례를 행한다. 추모

대상의 범위는 1대 혹은 2대로 하고 주관은 만이가 한다. 참석자는 남편과 주부 외에 자녀, 남편의 형제자매와 배우자로 한다. 날짜와 시간은 기일 혹은 기일 전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가능한 때로 한다. 복장은 단정한 평상복이나 정장으로 한다. 추모시설에서는 꽃을 준비해 가져갈 수도 있다. 음식준비는 고인이 평소 좋아하셨던 음식이나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형제들이 분담해서 마련한다. 추모의례를 마친 후에는 시설 내외의 식당에서 외식을 하거나 가족들이 준비해간 음식을 야외에서 나누어 먹으면서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현대사회의 추모의례는 가족구성원의 종교에 의거한 형식으로 그 행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적으로나 정신적인 면에서 추모의례에 내재된 본질적 의미는 변화 될 수 없다고 본다. 추모의례가 가정의 갈등적 요소로 그치는 것이 아닌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가장 친밀한 영역에서의 의례적 연행임을 볼 때 종교적 차이를 거부하기 보다는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하며, 의례준비가 만이나 주부에게만 부가되는 부담이 아닌 가족 모두의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상황에 적합한 추모의례의 재문화(re-enculturation)화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우리에게 있어 추모의례는 오랫동안 지키고 발전시켜온 정신문화이기도 하다. 우리가 추모의례에서 조상을 기리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한편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정신을 배우고 미래에 전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정신문화는 계승되고 발전되어 나가게 될 것이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본 논문에서는 중년기 주부만을 대상으로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과 향후 지향하는 추모의례의 모습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는데 그쳤으므로 후속연구

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부부간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연구 및 앞으로 함께 지향해나가야 할 추모의례의 모델 정립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년기 주부만을 조사하였으나 지역적으로 사례조사의 범위를 넓혀 지역별 추모의례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추모의례의 변화를 예견하기 위한 측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추모의례의 모델을 제안하는데 그쳤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추모의례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과 더불어 모델 수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2001). 한국 민속의 세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구미래(2009). '일생'에 대한 불교적 관념과 불교 일생의례의 특성. 비교민속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권태환(1999). 조상추모예식의 선교적 방향 연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숙(2008).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가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나(1989).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1984). 다례를 보는 현대인의 시각. 서울: 전통문화.
- 김미영(2009). 관혼상제에 투영된 유교적 세계관. 비교민속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김상혁(1996). 관혼상제. 서울: 하서출판사.
- 김시덕(2009). 한국 일생의례의 아시아적 보편성과 고유성. 비교민속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김영수(2002). 한국 가톨릭에 수용된 민간신앙적 요소. 한국민속학 35. 5-27.
- 김은정(2006). 추모의식을 통한 가족관계의 회복. 침례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옥(1990). 제사 시 제수에 관한 일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옥(1997). 전통제례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과 현행제례의 실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옥 · 이길표(1998). 전통제례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6(1), 51-63.
- 김인옥(2008). 한국 사회 가정의례의 현대적 재해석.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11(1), 51-62.
- 두경자(2000). 우리나라 제례의 검토와 제례 재구성모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147-170.
- 두경자(2001). 제례 재구성 모델의 실증적 검증을 통한 제례 모델 재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241-263.
- 문옥표(1997).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예절. 인문과학 76·77, 154-180.
- 문옥표(1998). 한국인의 가정의례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인문과학 79, 147-174.
- 문옥표(2007). 가정제례의 변용을 통해 본 현대 한국인의 가족관계와 젠더. 한국문화인류학 40(2), 287-319.
- 문옥표 · 정양완 · 최제숙 · 이충구 역주(2000). 증보사례편람. 조선시대 관혼상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경란(2001). 한국 제례문화의 지역적 특성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정(1989). 도시주부의 제례행례의식과 제례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

-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천(1986). 도시주부의 가정생활관과 제사행례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일영(2009). 천주교 일생의례의 종교적 특성과 세계관. 비교민속학회  
춘계 학술대회자료집.
- 박병구(2003). 한국전통제례와 추모식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옥 · 정혜은(2002). 제례절차와 서식의 현대화 모색. 한국여성교양학  
회지 10, 55-70.
- 박혜인(2001).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6(1), 31-54.
- 박혜인 · 조은숙(2001). 도시지역의 가족/친족의례 실태분석. 한국가정관  
리학회지 19(4), 167-184.
- 보건복지가족부(2009). 건전가정의례준칙. <http://www.mw.go.kr>.
- 서종선 · 김혜연(2007). 건강가정 및 건강가정실천방안에 대한 인식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81-106.
- 손유미(1990). 서울시 주부의 통과의례에 대한 의식과 의례절식의 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시열 저, 김종권 역(1987). 계녀서. 서울: 명문당.
- 안숙자 · 박경란(2001). 한국주부의 제례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  
교 생활과학논집 14, 49-68.
- 안숙자 · 박경란(2001). 한국주부의 제례행례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  
교 생활과학논집 14, 69-103.

- 안혜숙(1993). 석기시대의 신앙 및 제의와 가정생활문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혜숙·주영애·김인옥(2002). 한국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서울: 도서출판 신정.
- 윤원철(1990). 민속종교제의의 기능에 대한 고찰. 전통사향의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90(8), 109-132.
- 이길표(1982).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덕무 저, 김종권 역(1993). 사소절. 서울: 명문당.
- 이복규(2005). 개신교 추도식의 양상 및 전통 기제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온지논총 13, 308-327.
- 이복규(2009). 한국 개신교 일생의례의 특성과 세계관. 비교민속학 39, 13-32.
- 이승원(2006). 조상제사와 기독교 추도예배에 관한 연구.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춘(1998). 차례와 제사. 서울: 대원사.
- 이울곡 저, 김성원 역(1993). 격몽요결. 서울: 명문당.
- 이익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1976). 성호사설.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이정우·김명나(1990).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05-124.
- 이정우·김명나(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8, 23-50.
- 이정우·김연화(1999).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성·제례의식·제례수행. 한

- 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2), 33-50.
- 이현숙(1983). 제사를 통한 당내친의 협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흥기(2007). 미사전례. 서울: 분도출판사.
- 임옥재(1981). 제사에 대한 부녀자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0, 139-159.
- 임중웅(2007). 신 장례·제례. 서울: 도서출판 신나라.
- 장상옥(2004). 여대생 가정의 가정행사 수행 및 사회화와 행사의식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53-264.
- 정복미·정해옥·김은실(2004). 부산지역과 전남 여수지역 주부들의 제례준비 및 제례의식 조사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0(3), 135-154.
- 정각(2007). 불교 상·제례를 통해 본 죽음과 사후인식. 보조사상 28, 396-431.
- 조호익 저. 정선용 역(2003). 가례고증.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주재용(1995). 선유의 천주사상과 제사문제. 서울: 카톨릭출판사.
- 최배영(1994). 가례서를 통해본 혼례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우영(2003).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추모공원 설계기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kostat.go.kr>.
-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http://survey.go.kr/hies>.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제례 및 성묘 실태와 변화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용역보고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9). 미사 경본 총지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허윤석(2002). 한국 천주교 상제례 문화의 토착화. 사목연구 10, 148-182.
- 홍남석(1992). 생활예절. 서울: 성암출판사.
- 홍현주(1986). 조상제사에 대한 가치관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Martina Deuchler(2000). 조선시대 양반사회에서 의례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 비교민속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ABSTRACT

### **A Case Study on the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at Home where there are Middle-aged Housewives in Seoul.**

**- Centering around Deathday -**

Sookhoe Ku

Majoring in Propriety and Tea Culture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to illuminate the real state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which is being made in our society through middle-aged housewives to manage it. For this, I examined the recognition about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and the actual state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at home and grasped the view about the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which heads hereafter so as

to foresee the future change of the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There is the goal of study in presenting the model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which is suitable for present society on the basis of reestablishment for the essential meaning of culture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which is based on period change through this. For this study, I executed one to one in-depth interview on the basis of semi-structuralized questionnaire from the 1st of August in 2009 to the 20th of October in 2009 by choosing 10 persons by each religion such as Christianity, Catholicism, Buddhism, and nothing with 40 middle-aged housewives of 40-50 years old who dwell in Seoul.

To summarize main result is as follows:

1. As the result to have examined the recognition of middle-aged house-wives about the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many respondents were recognizing the essential meaning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as the expression of sincerity toward ancestors and as the culture of affection to extol ancestors. As for this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there was importance as the base to enable seek the harmony and cooperation of family and feel one body sense of community, memorize the instruction and intention of ancestors, and lead a life hard and in the function to be the momentum of children education which awakens the basis of filial piety. In addition, about the continuation of culture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in our society, view that it will continue with simplified form while form or procedure is reduced gradually was majority.

2. As the result to have examined the actual state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at home for middle-age, as

for the form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Confucianism was 60.0%, form to be based on the procedure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by religions such as Christianity Catholicism, and Buddhism etc. was 27.5%, and the combination of Confucianism+Catholicism or Confucianism+ Buddhism was 12.5%. Thus, tradition of sacrificial rituals is being maintained on the whole, but change was being made in the side of the form and contents. As for the place for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living room or main room at the home of managers take the lead. But, in partial cases, enshrinement sanctuary, sanctuary, and Buddhist temple etc. are mentioned. Thus, it reflected performance situation at facilities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or religion institution which is not home. As for day and time to do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evening before deathday showed most answers. But, there were homes to do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in the evening on deathday and on Saturday before deathday. Today, trouble to be caused by the form of ceremony for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was caused by the fact that religion of managers and religion of participants are different. In addition, in housewives, burden sense to be caused by the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is showing in the side of time, expense, and household labor etc. So, it could be seen that the efforts of families for alleviating this is required.

3. To arrange the form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that middle-aged housewives head, there is the case that form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which has been continued in home is adhered as it is. But, in next generation, form to change into the form to be different from now in accordance with

the thought of children or grafting form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will be able to appear. And, it is foreseen that form to do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at religion institution or facilities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which is not home will increase. It is forecast that recognition that subject range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shall be ancestor 1 generation back or ancestor 2 generation back will increase. And, participants will show difference in accordance with the subject range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Food preparation for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shall be sincere, and efforts that simplification may be made by division among participants or partial purchase will be required, and expense for food preparation will head for division among brothers.

4. I presented the model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which is based on the place that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is done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interview survey such as recognition of middle-aged housewives about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actual state of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view about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which is headed hereafter etc. As for the model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at home, performance shall be made by memorial service held on the anniversary of death in Confucianism style, memorial service of Christianity style, combination of memorial service held on the anniversary of death in Confucianism and Catholic element, and combination of memorial service held on the anniversary of death in Confucianism and Buddhist element. I presented the proposal to be able to progress with mass at sanctuary and Heaven sacrifice at Buddhist

temple in case that religions at home are Catholicism and Buddhism. In addition, while funeral ceremony culture changes into cremation, facilities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are changing into indoor enshrinement sanctuary and outdoor grave or tree park etc. So, I presented the model, so that ceremony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may be performed in this facilities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 부록

### 서울시 중년기 주부 가정의 추모의례에 대한 사례면접조사지

#### A.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1. 귀하의 연령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2. 귀하의 현재 직업 형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전업주부      ② 시간제 근무      ③ 종일제 근무      ④ 자영업
3. 귀하의 며느리 순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맏며느리      ② 둘째 며느리 이하      ③ 외며느리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5. 귀하와 가족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유교	기타
귀하(아내)						
남편						
시댁						
6.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 년

7.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 ① 남편
- ② 남편 + 자녀
- ③ 남편 + 자녀 + 시부모
- ④ 남편 + 자녀 + 시부모 + 시댁형제
- ⑤ 남편 + 자녀 + 시댁형제
- ⑥ 남편 + 자녀 + 친정부모
- ⑦ 남편 + 자녀 + 친정부모 + 친정형제
- ⑧ 남편 + 자녀 + 친정형제
- ⑨ 기타 ( )

8. 귀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_\_\_\_\_ 원

9. 귀하와 남편의 본적(고향)은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기타
귀하(아내)								
남편								

10. 귀하의 자녀는 몇 명이십니까? 아들 ( )명, 딸 ( )명

## B.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1. 추모의례의 의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추모의례는 효를 실천하는 도리이다.
- ② 추모의례는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정(情)의 문화이다.
- ③ 추모의례는 조상을 향한 후손의 정성의 표현이다.
- ④ 기타 \_\_\_\_\_.

2. 추모의례를 행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효의 근본을 일깨우게 하는 자녀교육의 계기가 된다.
- ② 조상의 훌륭한 업적과 정신을 후세에 전할 수 있다.
- ③ 가족들의 화목과 협동을 도모하게 된다.
- ④ 가족들이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 ⑤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 ⑥ 조상의 교훈과 유지를 기억하고 보다 열심히 생활하게 된다.
- ⑦ 공경을 다하는 후손은 복을 받게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 ⑧ 기타 \_\_\_\_\_.

3. 우리 사회에서 추모의례문화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모습대로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 ② 점차 형식이나 절차는 축소되면서 간소화된 모습으로 지속될 것이다.
- ③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추모의례문화가 등장할 것이다.
- ④ 많은 사람들이 추모의례문화를 낯설게 느끼게 될 것이다.
- ⑤ 일부 사람들에게는 추모의례문화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 ⑥ 기타 \_\_\_\_\_.

### C. 추모의례의 실태

1. 귀댁의 추모의례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① 1대조(부모님)만
- ② 2대조(조부모님)까지
- ③ 3대조(증조부모님)까지
- ④ 4대조(고조부모님)까지
- ⑤ 기타(예: 친정부모님)\_\_\_\_\_

2. 귀하와 남편 이외에 추모의례에 참석하는 가족은 누가 있으십니까?

자녀	시부모님	남편의 형제자매와 배우자	남편의 사촌형제와 배우자	조카	없음

3. 추모의례를 위한 준비를 주로 결정하고 주관하는 사람은?

- ① 남편과 나
- ② 시아버님
- ③ 시어머님
- ④ 아주버님
- ⑤ 시댁형제들이 돌아가며
- ⑥ 기타

4. 추모의례의 날짜와 시간은 언제입니까?

- ① 돌아가신 날 \_\_\_\_\_ 시 )  
(이유: \_\_\_\_\_ )
- ② 돌아가시기 전날 \_\_\_\_\_ 시 )  
(이유: \_\_\_\_\_ )
- ③ 기타 \_\_\_\_\_ )  
(이유: \_\_\_\_\_ )

5. 추모의례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시댁의 거실
- ② 시댁의 안방
- ③ 우리 집의 거실
- ④ 우리 집의 안방
- ⑤ 기타 \_\_\_\_\_

6. 추모의례를 행할 때 복장은?

남편	아내	시아버님	시어머님	다른 가족

7. 추모의례를 위해 준비하는 물품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분	준비한다	준비하지 않는다
① 나무로 된 신주		
② 지방(한문 혹은 한글)		
③ 사진		
④ 촛대		
⑤ 상이나 탁자		
⑥ 병풍		
⑦ 제기		
⑧ 축문(한문 혹은 한글)		
⑨ 종교적 물품		

8. 추모의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십니까?

- ① 제사상의 음식과 참석한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모두 준비한다.
- ② 참석한 가족들을 위한 음식만 준비한다.
- ③ 음식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이유: \_\_\_\_\_ )

9. 추모의례의 음식 마련 방법은?

구분	집에서 직접 만든다.	만들어진 것을 구입한다.	마련하지 않는다.
① 밥(반)			
② 국(갱)			
③ 탕(육탕, 어탕, 소탕)			
④ 적(육적, 어적, 소적)			
⑤ 떡			
⑥ 면(국수)			
⑦ 포			
⑧ 식혜			
⑨ 김치(침채)			
⑩ 나물(숙채, 생채)			
⑪ 전(육전, 어전)			
⑫ 젓갈			
⑬ 간장			
⑭ 과일			
⑮ 술			

10. 추모의례의 음식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주관자의 가정에서 부담한다.
- ② 시댁형제들이 현금으로 상호 부조한다.
- ③ 시댁형제들이 음식을 나누어 맡아 상호 부조한다.
- ④ 기타 \_\_\_\_\_.

11. 추모의례는 어떠한 형식과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형식	절차(순서대로 말씀해주십시오)
① 전통식(유교식)	
② 기독교식	
③ 천주교식	
④ 불교식	
⑤ 기타 _____	

12. 추모의례를 위해 가족들이 생활면에서 노력하는 점이 있습니까?

- ① 추모의례를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
- ② 추모의례의 음식을 준비할 때는 먼저 먹지 않는다.
- ③ 추모의례의 음식은 고양이, 개, 벌레 등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 ④ 추모의례에 사용하는 그릇은 평상 시 것과는 구별해서 쓴다.
- ⑤ 추모의례에 입는 복장은 평상 시 입는 것과는 구별해서 입는다.
- ⑥ 추모의례를 위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 ⑦ 추모의례를 앞두고 목욕을 정결하게 한다.
- ⑧ 추모의례를 앞두고 지나친 음주는 자제한다.
- ⑨ 기타 \_\_\_\_\_.

13. 추모의례의 형식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있으십니까?

만일 있으시다면 어떠한 조정의 방안을 취하고 계십니까?

14. 현재 행하고 있는 추모의례로 인해 다소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으십니까? (예: 경제적인 부담, 바쁜 직업생활로 인한 시간 부족의 부담, 제수 마련 시 가사노동의 부담 등)

D. 향후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

1. 귀하의 자녀세대가 향후 추모의례를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원한다  
(이유: \_\_\_\_\_ )
- ② 원하지 않는다  
(이유: \_\_\_\_\_ )

2. 귀하는 자녀세대가 어떠한 모습의 추모의례를 행하기를 희망하십니까?

3. 자녀세대가 추모의례에 대한 교육 기회를 무엇을 통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
- ② 대학
- ③ 종교기관
- ④ 사회문화센터
- ⑤ 인터넷이나 TV
- ⑥ 책

4. 귀하의 자녀세대가 다음 중 어느 부분에서 추모의례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내용	
① 추모의례의 의미에 대해	⑧ 추모의례의 장소에 대해
② 추모의례를 행하는 의의에 대해	⑨ 추모의례의 복장에 대해
③ 추모의례의 대상 범위에 대해	⑩ 추모의례의 소요물품에 대해
④ 추모의례의 참석 범위에 대해	⑪ 추모의례의 음식준비방법에 대해
⑤ 추모의례 주관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⑫ 추모의례의 음식준비비용에 대해
⑥ 추모의례 주관자의 몸가짐에 대해	⑬ 추모의례의 종교적 형식에 대해
⑦ 추모의례의 날짜와 시간에 대해	⑭ 추모의례의 절차에 대해